朴대통령 시정연설 키워드는

metro®

메트로 2015년 10월 28일 수요일 제3329호 www.metroseoul.co.kr

market index <27일>

지표	값	변동
코스피	2044.65	(-3.43)
코스닥	688.32	(-2.41)
금리(국고채 3년)	1.63	(-0.02)
환율(원·달러)	1133.50	(+1.00)

롯데그룹, 순환출자고리 84% 해소

신동빈, 약속 지켰다

투명 경영 확보로 시장 신뢰 다져
호텔롯데 상장, 시간 문제일 듯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롯데그룹 계열사 간 순환출자고리의 80% 이상을 끊었다.

롯데그룹은 27일 8월 말 이후 약 2개월 동안 기존 416개의 순환출자고리 중 약 84%(349개)를 해소했다고 발표했다. 시장에서는 롯데 지배구조가 한층 투명해지면서 시장의 신뢰도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나머지 순환출자 고리는 호텔롯데 상장, 롯데쇼핑 순환출자 해소, 지주회사 전환과정에서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 약속 지킨 신동빈 회장… 유리알 지배구조로

지난 8월 28일 신 회장은 사재를 털어 롯데제과 주식 1만9000주(종가 기준 357억5800만원 규모)를 사들여 순환출자 고리 34%(140개)를 한꺼번에 끊었다.

이어 이날 호텔롯데가 롯데쇼핑 등 3개 계열사 보유주식을 매입해 209개(50.2%) 고리를 추가로 없앴다.

구체적으로 호텔롯데는 △롯데쇼핑의 롯데알미늄 주식 12% △한국후지필름의 대홍기획 주식 3.5% △롯데제과의 한국후지필름 주식 0.9%를 사들였다.

예를 들어 롯데쇼핑이 보유한 롯데알미늄 주식을 호텔롯데가 인수하면서 기존 '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제과-롯데쇼핑', '롯데쇼핑-롯데알미늄-롯데건설-롯데쇼핑'과 같은 큰 순환출자 고리가 끊어졌다. 지분관계가 호텔롯데를 중심으로 단순한 직선 형태로 바뀐 것이다.

마찬가지로 '한국후지필름-대홍기획-롯데정보통신-롯데쇼핑-롯데상사-한국후지필름', '한국후지필름-대홍기획-롯데제과-롯데쇼핑-롯데상사-한국후지필름' 등의 순환출자도 호텔롯데가 후지필름의 대홍기획 지분을 사들이는 동시에 풀렸다.

후지필름 주식 0.9%의 소유권이 롯데제과에서 호텔롯데로 넘어가면서 '롯데제과-한국후지필름-롯데쇼핑-대홍기획-롯데제과', '롯데제과-한국후지필름-대홍기획-롯데제과' 등의 순환출자 고리도 사라졌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호텔롯데가 3개사로부터 사들인 주식 수는 12만7666주, 매입 금액만 1008억원이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 8월 경영권 분쟁 관련 대국민 담화에서 "11월 말까지 그룹 순환출자고리의 80% 이상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9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80% 해소 시점을 10월 말까지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신 회장은 순환출자 해소 84% 완료 사실을 발표하면서 "국민께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켜 사랑과 신뢰받는 기업으로 발전할 것"이라며 "경영 투명성 확보, 기업문화 개선, 사회공헌 확대 등 롯데의 개혁과제를 중단 없이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호텔롯데 상장, 시기의 문제

롯데그룹 지배구조 개편의 방점은 지주회사에서 찾아야 한다는 게 증권가의 분석이다.

그 시작은 호텔롯데의 상장이다.

신 회장은 지난 8월 지배구조 쇄신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그룹의 지주회사 전환 비용으로 7조원을 예상한다"며 "한국롯데의 지주회사인 호텔롯데의 주주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IPO)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호텔롯데가 내년 2월 상장하려면 다음 달까지 예비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거래소는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지배구조 안정성 등을 들여다 본다.

문제는 형제 간 경영권 분쟁이 다시 시작되면서 걸림돌이 됐다.

신동주 전 부회장이 한국과 일본에서 제기한 총 3건의 소송은 심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 기업공개는 필요하지만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100% 순환출자 해소를 우선시 했다.

금융감독원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호텔롯데 최대주주는 일본롯데홀딩스로 지분율은 19.07%다. 광윤사도 5.45%나 보유하고 있다. 신동주 전 부회장은 지난 14일 지분율 51%로 과반 주주 지위를 확보하며 광윤사 대표이사에 선임됐다.

그러나 상장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게 그룹 안팎의 판단이다.

롯데 관계자는 "순환출자 84% 해소로 롯데의 지배구조가 더 간결해지고, 경영 투명성도 높아져 투자자 신뢰가 커질 것"이라며 "롯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한 순환출자고리 완전 해소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나금융투자 오진원 연구원은 "지배구조 개편을 천명한 롯데그룹은 분할·합병보다 비상장 지분 직매입을 통한 신속한 순환 출자 해소에 나설 전망"이라며 "호텔롯데는 자회사 추가 지분을 확대하는 등 지주회사로서의 지위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하나금융투자는 호텔롯데가 상장되면 시가총액은 12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 돈이면 지주회사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는다. 단 면세점 수성 등을 통해 적정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롯데카드, 롯데캐피탈, 롯데손해보험 등 금융계열사 문제는 올해 말까지 예정된 중간금융지주 관련 공정거래법 개정 여부가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롯데정보통신은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예비상장심사 신청서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했다.

/김문호·정용기 기자 kmh·yonggi@metroseoul.co.kr

지하철역 상가 병원 들어서나

지하철 5~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지하철 역사 내에 병·의원 입점을 추진한다.

26일 공사는 역사 내 병·의원 입점에 관한 제도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등록제로 운영되는 약국의 경우 서울도시철도공사가 운영하는 5~8호선 지하철 역사 4곳에 입점해 있지만 신고·허가제로 운영되는 병·의원은 입점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병·의원과 약국은 근린생활에만 입점할 수 있으며 지하철 역사 입점과 관련해서는 규정이 없다.

공사는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이 들어서면 이용객들이 지상에 올라가지 않고도 빠르고 쉽게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 5~8호선운영 서울도시철도 추진
> 역사내 응급상황 초기대응 장점
> 의료계 반발 불 보듯… 신중 논의

접근성과 역사 내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응이 빨라질 수 있다는 장점을 설명했다.

하지만 지하철 역 출입구와 가까운 지상에 병·의원이 많은 상황이어서 의료계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 지하철 이용객은 하루에만 약 667만 명으로 지하철 역사 내 병·의원 입점 허용이 추진되면 사실상 지상에 위치한 병원은 주 고객층을 빼앗기게 되는 셈이다. 보건복지부 역시 비슷한 견해를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협의 과정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하철 역사에 병·의원 입점을 허용하면 지상에 있는 병·의원의 반발이 예상돼 현실화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지난 2일 서울 노원구 지하철7호선 수락산역 승강장에서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들이 비상시 승객들의 하차시간을 측정해 보고 있다. /연합뉴스

퇴직공무원 3만8천명에 기초연금 잘못 지급

보건복지부가 퇴직 자격이 없는 공무원 상당수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뒤늦게 발견해 환수에 나섰다.

복지부는 2015년도 하반기 확인조사(10~12월)에서 공무원연금공단,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등 특수직역연금기관에서 제공한 자료를 검증한 결과 3만8000여명에게 기초연금을 잘못 지급한 사실을 발견했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 급여액을 조정하는 방식 등으로 잘못 지급된 수급액을 환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번 확인조사 결과 일부 퇴직 공무원이 수급 자격 없이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특정 시기(1994~2001년)에 퇴직한 공무원의 퇴직금 정산 자료가 늦게 정비돼 이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명했다.

복지부는 "정부가 연금 수급자격을 심사할 때 처음부터 제대로 했어야 하는데 실수가 발생해 어르신들에게 죄송할 따름"이라며 "그래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아야 하기에 어르신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훈 기자 fun@

Car insurance, the ways to make it cheap and plentiful?

자동차 보험, 저렴하고 풍성하게 드는 방법은?

All the car insurance companies have their own special contracts and they have different ways to calculate tariffs.

Thus, consumers can save money as much as they know.

In order to reduce the insurance premium, consumers should choose special contract that suits them and choose it after comparing the parts that they can get a discount.

According to the industry on the 26th, car insurance is composed of personal indemnification I, personal indemnification II, property damage, self physical accident(vehicle lesion), their own vehicle damage, uninsured motorist coverage.

◆ How should we choose the roaming service that fits us when we go abroad?

The three major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providing differentiated payment systems to the customers who are going abroad.

They offer different sort of services depending on the consumers and their purpose of use.

It is true that they take a risk of being charged massive amount of money due to the poor management of their mobile or the choice of the ineffective tariff when they take a trip to abroad.

However, the range of choice for tariff expanded now. So it seems possible for consumers to save money on their trip.

자동차 보험은 회사별로 다양한 특약이 있고, 보험료를 산출하는 요율도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아는 만큼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본인에게 맞는 특약을 선택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비교 선택해야 보험료를 낮출 수 있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은 대인배상I, 대인배상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담보 등으로 구성된다.

◆ 해외 나갈 때 내게 맞는 로밍제 선택은 어떻게?

이동통신 3사가 해외여행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차별화된 로밍 요금제를 선보이고 있다. 이용 목적과 이용자에 따라 이통사간 각기 다른 특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외여행시 일 1만원 이상의 활용도 떨어지는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휴대폰 관리 부실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요금폭탄'의 위험성을 안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나만의, 내게 맞는 로밍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 소비자 입장에서도 일상 생활에서 '새는 돈'을 줄이며 한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여행이 될 것으로 보인다.

/EDB 영어회화학원 대표강사 닥터 벤

국제

▲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국제법상 '항행의 자유'를 내세워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 **중국**은 27일 오전 남중국해에 건설 중인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진입한 미군 구축함에 대해 경고 수준에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은 인공섬이 자국의 영토라며 12해리 이내 접근은 '국제법상 영해'를 불법 침입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일본 정부**가 한일 정상회담을 11월 2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는 청와대의 발언을 부인했다.

▲ 베트남전의 참상을 알려 퓰리처상을 받은 사진 속의 **베트남 소녀**가 43년만에 전쟁 당시 입은 화상을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사회

▲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국회에서 행한 2016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통해 "집필되지도 않은 교과서,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두고 더 이상 왜곡과 혼란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일부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박근혜** 대통령은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올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면 앞으로 연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 포스코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조상준 부장검사)는 협력사 특혜 의혹에 연루된 **이상득**(80) 전 새누리당 의원을 건강상 이유로 불구속기소하기로 결정했다.

▲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자신이 아닌 가족이 금품을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얻도록 한 경우에도 **배임수재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평창서 열린 '꿈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 '2015 꿈의 오케스트라 페스티벌'이 전국 22개 거점기관의 아동단원 1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27일 강원 평창군 알펜시아리조트에서 펼쳐져 단원들이 1년간 준비한 다양한 레퍼토리를 무대에서 연주하고 있다. 28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사회문화예술교육 사업의 하나로 오케스트라 합주교육을 통해 소외 아동과 청소년의 다면적 성장을 도모하고 서로의 실력과 경험을 나누는 자리다. /연합뉴스

산업·경제

▲ **삼성전자**가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키워 전체 에어컨 사업을 2020년까지 100억 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 **LG화학**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핵심 생산기지인 난징 공장을 준공했다. LG화학은 이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으로 '오창(한국)-홀랜드(미국)-난징(중국)'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한달여 만인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방향과 미래를 제시했다.

▲ **'황금 주파수'**로 불리는 2.1기가헤르츠(㎓)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 통신 3사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SK텔레콤과 KT가 보유한 2.1㎓ 주파수의 사용 기간이 내년 말 종료되면서 다시 배분되는 이 주파수를 차지하기 위해서다.

▲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여성 94만9948명 중 48.3%가 월 2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다. 수급자수 자체도 남성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데다 월 100만원 이상의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도 수급자의 0.1% 뿐이었다.

▲ 정보과학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투자회사보다 정보기술(IT)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이 27일 시중은행장과 가진 조찬 간담회에서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 **롯데그룹**이 순환출자고리 해소 노력이 성과로 나타나고 있다. 롯데그룹은 기존 416개의 순환출자고리 중 약 84%(349개)를 해소해 전체 순환출자고리 중 67개(16.1%) 순환출자고리가 남게 됐다.

▲ **SK네트웍스**가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 두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은 도심 복합리조트로, 동대문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SK네트웍스는 두 면세점을 모두 석권할 경우 2020년까지 '이스트 서울·이스트 코리아' 관광벨트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동원그룹**이 연내에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동원그룹은 이미 환자식, 반조리식품, 반찬류 3개 상품군에 제품 개발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의 차세대 먹거리는 시스템 에어컨"

윤부근 사장, 글로벌 B2B 확대 선포
2020년까지 전세계서 100억弗 팔겠다

삼성전자가 2020년까지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100억달러(약 11조 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대거 투입해 대표적인 B2B(기업간 거래) 사업인 시스템에어컨 부문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27일 경기도 용인시 서천동에 위치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삼성 AC 포럼 2015'에서 이 같이 밝혔다. 삼성 AC 포럼 2015은 이날부터 10일간 열린다.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다양한 B2C(일반 소비자)와 제품에서 이뤄온 혁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대표적인 B2B 사업인 시스템에어컨 시장의 새로운 트렌드를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체 소비자가전 부문에서 에어컨 사업 비중은 20~30%인데, 앞으로 30% 정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그동안 소비자가전부문이 B2C에 비해 B2B 사업을 강화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지만 회사 성장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B2B 부문에 기술을 도입하고 혁신 제품을 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대대적인 신제품 출시 행사를 치를 계획이다.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2016년 상반기까지 약 5개월 동안 50여개국 117개 도시에서 9000여명의 주요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또 영국 왕립 예술 협회 소속 건축가 러셀 브라운과 함께 건축 디자인과 공조 시스템의 협업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앞으로 건축과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은 물론 건설사 등의 파트너 업체와 활발한 교류를 지속해서 추진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B2B 솔루션도 지속적으로 마련해 B2C 영역의 '스마트 홈'과 함께 B2B에서는 '스마트 스페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27일 오전 경기도 용인시 삼성전자 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삼성 AC 포럼 2015'에서 윤부근 삼성전자 소비자가전부문 대표이사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스템에어컨 기기간 연결을 통한 최적의 빌딩 에너지 절감 솔루션에서 쌓아온 기술력을 바탕으로 건물의 안정성을 체크해서 안전한 삶을 제공하는 시큐리티와 노령화 추세에 맞춤형 관리를 할 수 있는 시니어케어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이번 행사에서 ▲360 카세트 ▲DVM 칠러 ▲DVM S ▲DVM S 에코 등 다양한 시스템에어컨 신제품을 공개했다.

360 카세트 실내기는 독특한 원형구조로 냉방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는 불편함을 없앤 게 특징이다. 항공기나 풍력발전기에 활용하는 기류 응용 원리에서 착안한 부스터 팬을 세계 최초로 적용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중앙공조 시장 공략을 위해 내놓은 DVM 칠러는 별도의 냉각탑이 필요 없어 설치 공간을 대폭 줄여준다. 삼성전자는 절전 기술을 집약해 효율성도 극대화했고 각 20톤 용량의 단일 모듈별로 손쉬운 이동과 설치가 가능하다.

아울러 세계 최대 용량의 시스템에어컨인 84㎾(30마력)와 78.6㎾(28마력) 삼성 DVM S 신모델도 공개했다. DVM S 에코는 크기를 줄이면서도 고성능을 갖춘 모델이다. 400㎡(평방미터)의 대형 평수 주택이나 상업시설도 40㎾(14마력) 용량의 실외기 단 1대만으로 최대 26개의 실내기를 연결할 수 있다. 여타 동급 모델보다 바닥 면적과 무게를 각각 54%, 30% 정도 줄여 공간 효율성도 높였다.

윤 사장은 "오늘 공개한 제품은 업계 최고 성능과 효율을 자랑하는 제품"이라며 "삼성전자가 본격적으로 B2B의 미래를 확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사의 표명' 최광 "洪 연임불가 결정 정당"

국정운영 위해 사퇴 결정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인사 문제를 놓고 보건복지부와 갈등 끝에 27일 사의를 표명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 정부의 국정철학을 지원하고 임명권자의 강력한 국민복지 실현 의지와 국정운영에 부담을 드리지 않기 위해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최 이사장은 다만 갈등의 발단이 됐던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의 연임불가 결정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이사장에게 부여된 고유권한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기금이사를 선임하려고 했던 중요한 사유는 생명과도 같은 국민의 미래자산을 조금이라도 더 잘 관리할 수 있는 글로벌 역량을 갖춘 전문가를 영입해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함이었다"면서 "기금운용 혁신을 통해 연금의 주인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훌륭한 역량을 갖춘 전문가로 기금이사를 조속히 선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공공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정책당국의 책임자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요망한다"고 쓴소리를 했다.

27일 사의를 표명한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뉴시스

최 이사장은 지난 12일 복지부의 반대에도 임기가 11월 3일까지인 홍완선 기금운용본부장에게 '연임 불가' 방침을 통보한 바 있다. 복지부는 협의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최 이사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최 이사장은 "이사장의 당연하고도 적법한 직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일로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선진적인 기금 지배구조와 기금운용조직을 마련하고 국민연금 제도운영과 기금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연금공단에 대해 정책 당국의 특별한 배려와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연미란 기자 actor@

현역 입영 빨라진다… 대기자 2만명 줄어

군 '청년 일자리 해소' 동참
김무성 "여러 대책 마련 추진"

정부가 내년부터 2년간 당초 예정된 현역병 입영 정원을 늘리기로 했다. 군 입대 적체 현상을 해소하고, 잠정적으로는 청년 일자리 해소에 보탬이 되겠다는 취지다. 현행 입영신청 제도는 경쟁률이 7.5대 1까지 치솟는 등 '입영장수생' 문제가 심각하다. 군 입대에 떨어질 것을 예상치 못하고 휴학을 한 경우 아르바이트로 경제적 공백을 메우거나 재직 중 갑작스런 군 입대로 일자리와 경력을 잃게 되는 경우도 빈번한 실정이다.

이에 정부와 새누리당은 27일 국회에서 김무성 대표, 김정훈 정책위의장과 한민구 국방장관, 박창명 병무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현역병 입영 정원을 추가로 투입하는데 중지를 모았다.

국회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육·해·공군과 해병대 입영 경쟁률은 7.5대1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6대1보다 더 높아진 수치다. 당정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연 1만명 추가 입영 조치 외에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4000명에서 6000명으로 확대 △고퇴이하자(고졸중퇴이하자) 보충역에 대해서는 지원자에 한해 현역 입영 허용 △장병 신체검사 기준 강화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당정은 내년도에 600억원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할 계획이다. 연간 현역 입영 인원이 25만명 수준이어서 1만명 정도를 더 수용할 역량과 시설은 충분하다는 게 국회 국방위원회 김성찬 의원의 입장이다.

당정은 산업기능요원을 현행 고졸 자격에서 전문대 재학 인원까지 포함시켜 상대적으로 현역 입영인원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산업기능요원의 근무기간 단축도 고려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하고 고등학교 중퇴자를 보충역으로 돌리는 등 현역 입영 요건을 더욱 까다롭게 하기로 했다. 다만 고교 중퇴자가 보충역 대신 현역 입영을 원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연미란 기자

유커 빨아들이는 '강남 트라이앵글'

서울시, 유커 쇼핑 패턴·동선 빅 데이터 분석해보니…

서울 명동 거리가 중국인 관광객으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강남, 압구정·청담·신사역 성형외과-백화점-식당 코스

강북, 이대·홍대·동대문역 로드샵·건강식품 매장 인기

밤낮 없는 소비 열기 숙소마다 인터넷 설비 완비 영향 자정~새벽1시 쇼핑몰 결제 왕성

서울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 이른바 유커의 소비 패턴 유형이 '강남 트라이앵글형'과 '강북 실속형'으로 나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서울시는 중국 최대 신용카드사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과 BC카드, KT와 함께 빅데이터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강남 트라이앵글형'은 압구정·청담동 일대의 성형외과에서 미용시술을 받고 백화점에서 명품쇼핑 후 가로수길에서 식사를 즐기는 코스 유형이다.

'강북 실속형'은 이대·홍대·동대문 등의 로드샵에서 의류를 비롯해 화장품, 건강식품 등을 쇼핑하는 코스다.

유커들의 카드 소비 지출은 자정부터 새벽 1시 사이에도 끊이지 않았다.

특히 소비 지출의 60~70%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했는데 낮에는 오프라인 쇼핑을 즐기고, 심야에는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 접속해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G마켓의 중국 관광객 전용몰 오픈(2013년 말), 신세계 갤러리아 온라인 전용몰 오픈(2014년) 이후부터 올해 초까지 조사한 결과 유커의 국내 전체 인터넷 쇼핑몰 소비액은 전년 동 기간보다 다섯 배 이상 급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인 해외역직구족을 겨냥한 별도의 온라인 쇼핑몰 오픈, 빠른 국내 초고속 통신망과 체류 중에 쇼핑 물품을 받아볼 수 있는 신속한 국내 배송 시스템 구축이 유커의 마음을 사로잡은 비결이다.

이번에 체결한 빅데이터 업무협약은 최근 중국 관광객의 관광 트렌드가 단체관광에서 20~30대 중심의 개별관광으로 이동 중인 가운데 나왔다.

관광객의 융·복합적 자료 분석으로 현장 소비패턴을 보다 정밀하게 분석해 관광 정책에 효과적으로 반영하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자료 분석을 토대로 외국인 관광객이 선호하는 관광요소를 파악해 새로운 관광 코스를 발굴하고,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최적화하는 등 다양한 관광 정책 수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유니온페이 인터내셔날은 서울시와 공동 마케팅을 추진해 중국과의 우호 협력을 강화하고, 시가 추진하는 각종 행사와 관광지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에 대한 프로모션 진행 등 다양한 지원에 나선다. KT 또한 관광분야 활성화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시와 함께 빅데이터 활용 우수 사례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영훈 서울시 정보기획관은 "빠르게 변하는 중국 관광객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데이터 분석을 통한 관광 활성화 전략 필요하다"며 "이번 협약은 관광 분야에 빅데이터 분석을 적용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이다. 앞으로 관광 뿐 아니라 민간과의 빅데이터 협력 분야를 확대해 시민·관광객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용돈도 안되는 노령연금… 수급여성 절반 20만원도 못 받아

국민연금 공표통계 7월 말 女수급자 94만9948명 30만원 이하도 4명 중 3명 꼴

국민연금 노령연금 급여규모별 수급자 현황 (단위:만원, 명)

월급여	계	10미만	10~20	20~30	30~40	40~50	100이상
남자	206만9703	6403	49만9907	46만5031	35만1880	20만1328	8만5488
여자	94만9948	2만6723	43만2420	28만8608	11만7149	4만7157	1078

※ 자료 = 국민연금연구원, 2015년 7월말 기준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여성의 절반 가까이는 한 달에 받는 금액이 20만원도 채 안됐다. 수급자수 자체도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또 올해 국정감사에서는 국민연금으로 받는 돈이 은퇴 전에 받는 평균 소득의 20%에 불과해 충분한 노후 보장 수단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27일 국민연금연구원의 '국민연금 공표통계'에 따르면 7월 말 현재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여성은 94만9948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월 수령액이 10만원 이하는 2만6723명(2.8%), 월 10만~20만원은 43만2420명(45.5%)으로 절반에 육박하는 48.3%가 월 20만원 이하였다.

월 20만~30만원은 28만8608명(30.4%)으로 4명 중 3명 이상인 78.7%는 월 30만원 이하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었다.

여성 수급자 상당수가 월 30만원 이하에 몰려 있다. 수령액이 올라갈수록 수급자수는 급격히 줄어 들어 월 100만원 이상은 전체 여성 수급자의 0.1%(1078명) 뿐이었다.

남성 수급자의 수령액 역시 월 3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았지만 집중되는 정도는 여성보다 훨씬 양호한 편이었다.

월 20만원 이하인 남성은 전체 남성 수급자의 25.5%였으며 월 30만원 이하는 46.9%였다. 월 100만원 이상은 4.1%로 여성보다 비중이 높았다.

여성은 남성보다 수급자 수 자체도 적었다. 여성 수급자(94만9948명)는 남성 수급자(206만9703명)의 절반도 되지 않는 45.9% 수준이었다. 남녀를 불문한 전체 노령연금 수급자의 평균 수령액은 월 34만5700원이었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제도 도입 초기 5~9년만 가입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한 특례연금이 포함됐다. 특례연금을 제외하면 평균 수령액은 월 48만4210원이 된다.

가입 기간 20년 이상인 수급자의 월 수령액 평균은 88만4210원, 가장 수령액이 많은 수급자는 한 달에 182만6650원을 받고 있었다.

용돈 수준이라도 받으면 행복한 편이다.

국회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수급률은 2010년 29.5%에서 2014년 39.6%로 10.1%로 개선됐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 10명중 6명(60%)은 공적연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됐다.

가장 많은 국민이 가입한 국민연금을 너무 믿어서도 곤란하다. 직장을 다니며 받는 평균 소득의 5분 1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안철수의원실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에서 연금 수령액이 차지하는 비율은 앞으로 50여년간 20%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됐다.

이 비율은 올해 18.1%에서 20여년 뒤인 2032년에 23.4%까지 점진적으로 늘었다가 다시 꺾인다. 결국 2053년에는 21.5%로 하락해 2060년까지 계속 멈춰있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문가들은 2060년 국민연금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는 지난 88년 국민연금제도를 도입할 때 연금의 소득대체 비율을 70%로 잡았다가2028년 가입자부터는 40%로 떨어뜨린 바 있다. 결국 정부가 목표로 하는 소득 대체비율 40%도 앞으로 장기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고용 불안을 해소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을 늘리고 현실적으로 보험료도 올려야 한다는 제안이 많다.

또 국가가 국민연금을 통해 과연 어느 수준까지 국민 개개인의 노후 삶을 보장해줄 수 있는 것인지 사회적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은 49.6%로 OECD 평균 12.6%보다 3.9배나 높다.

/김문호 기자 kmh@

세계보건기구(WHO)는 커피를 방광암 유발 물질이라며 발암물질 2B군 판정을 내렸다. 또 가공육과 생고기를 발암물질로 규정했다. /연합뉴스

WHO "커피 등 온통 발암물질"… 시민 "뭐 먹나"

40여년 간 1000건 조사

절반이 발암물질 판정
"아니다"는 1건 뿐
나머지는 판단 유보

관련업계 등 강력 반발
"상식 어긋나… 뭘 먹나"

세계보건기구(WHO)가 1970년대부터 40여 년 동안 화학물질과 이를 다루는 직업을 포함해 약 1000개 품목에 대해 발암물질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중 거의 반 정도가 발암물질 판정을 받은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여기에는 유해화학물질뿐만 아니라 커피, 술, 생고기, 가공육, 염장생선 등 먹거리도 포함됐다. 또 자동차 배기가스, 대기오염, 미세먼지 등 일상생활에서 피하기 힘든 물질도 포함됐다. WHO는 유해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미용사나 화가 등에게 암 발병 경고를 하기도 했다.

WHO가 조사한 대상 중 발암물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1999년 발표한 '카프로락탐'(화학섬유인 혼성폴리아마이드를 합성하는 원료)뿐이었다. 나머지 500개가 넘는 절반은 확실한 증거가 없어 발암물질 판단을 유보했다.

◆발암물질 여부 5개군 분류

WHO는 발암물질을 5개군으로 분류한다. 제1군은 인간에게 암을 유발할 것이 확실한(definitely) 그룹이다. 발암물질로 잘 알려진 석면, 비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2A군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probably) 그룹이다. 제2B군은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possibly) 그룹이다. 2A군과 2B군은 영어 표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probably'가 'possibly'보다 가능성이 더 크다는 표현이다. 제3군은 미분류 그룹이다. 발암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없어 분류를 유보한 그룹이다. 제4군은 발암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그룹이다. 물론 전혀 가능성이 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중요한 것은 그룹을 나누는 기준이다. 5개군은 현실적인 위험도가 어느 정도냐를 기준으로 나눈 것이 아니다. 증거가 얼마나 확실하냐의 여부로 나눈 것이다. 현실에서 암 유발 정도가 높지 않더라도 1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다. 평상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서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일을 피했을 때 나타나는 경우다. 이를 소홀히 한다면 암이 발병할 수 있는 셈이다.

WHO가 조사한 1000개 가까운 대상 중 1군에 속하는 것은 100여 개가 넘는다. 2A군에 속하는 것은 70여 개 가량이다. 2B군에 속하는 것은 300개 가까운 숫자다.

◆커피, 술, 고기 등 발암물질 판정

WHO가 발암물질이라고 판정 내린 것에는 일상의 먹거리와 기호식품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커피의 경우 방광암 유발 물질로 2B군 판정을 받았다. 알콜 음료는 1군 판정을 받았다. 씹는 담배(smokeless tobacco), 담배 연기, 간접 흡연도 모두 1군 판정을 받았다. 중국인들이 즐기는 염장 생선도 1군에 속한다.

WHO는 전날 가공육과 생고기까지 발암물질로 판정했다. 가공육은 1군이다. 매일 50g을 먹으면 직장암에 걸릴 위험이 18%로 높아진다는 설명이다. 가공육은 햄, 소시지, 쇠고기 통조림, 말린 고기, 훈제 고기 등 여러 처리를 거친 고기제품을 아우른다. 생고기는 2A군이다. 대장암, 직장암, 전립선암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한다. 여기에는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 말고기, 염소고기 등 갖가지 종류의 고기가 포함된다.

◆배기가스, 미세먼지도 발암물질

먹거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매일 접하는 물질들도 발암물질 판정을 받았다. 미세먼지, 대기오염, 목재가루, 낡은 가죽에서 날리는 가루, 자외선 태닝기, 자외선 복사, 광범위한 태양 복사, 연탄이나 석탄도 실내에서 피우면 암을 유발하는 1군의 물질이다. 1군에는 디젤 자동차의 배기가스도 들어간다. 가솔린자동차의 배기가스는 1군이 아닌 2A군에 속해 다소 차이가 난다. 석탄과 달리 실내에서 나무를 태울 때 나는 연기도 2A군에 속한다. 배기가스가 아닌 가솔린이나 디젤 그 자체는 2B군에 속한다.

직업에 따라 발암물질 경고가 나오기도 한다. 유해물질을 접하는 직업들이 이에 해당한다. 고무공장 근로자, 화가는 1군으로 분류된 대표적인 직업이다. 미용사와 이발사는 2A군에 속한다. 드라이클리닝 세탁소는 2B군에 속한다.

◆조사의 공정성 논란

발암물질로 판정나면 관련 업계는 직격탄을 맞기 마련이다. 발표 즉시 업계에서 강력한 반발이 나올 것은 불문가지다. 실제 전날 WHO가 가공육과 생고기에 대한 발암물질 판정 결과를 발표하자 세계의 육류업계는 강하게 반발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북미 육류협회는 "가공육과 생고기를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고기와 암이 상관관계가 없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에서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이탈리아 전통 햄인 '파르마 햄' 제조업자들이 마찬가지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한국의 육가공협회 관계자도 "가공육을 발암물질로 규정한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간단히 규명할 수 없는데도 이론적으로 단순화한 결과를 발표했다"고 반발했다.

소비자들도 즐기는 식품이 발암물질로 규정되자 발끈하는 분위기다. 특히 육류를 즐기는 미국인들 사이에서는 "그럼 무엇을 먹으라는 말이냐"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는 보도가 전해진다.

이 같은 타당성 논란은 물론이고 공정성 시비까지도 WHO가 의식하고 있는 문제다. 조사 실무를 맡은 곳은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다. 여기에는 업계, 학맥, 특정 국가로부터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각국의 과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송병형 기자 bhsong@metroseoul.co.kr

남중국해 인공섬 '美 군함' 항행 강행

미·중 일촉즉발 추격전

미 해군 이지스 구축함 '라센'호가 남중국해 난사제도에서 중국이 건설 중인 인공섬 주변 해역을 27일 오전 항해했다. 미국은 인공섬 주변에서 지속적으로 항행을 실시할 방침이다. 중국은 무력 대응은 자제했지만 강력하게 항의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라센호는 인공섬의 12해리(약 22km) 이내 수역을 항행했다. 12해리 이내는 국제법에서 영해로 간주한다. 라센호가 12해리 내를 지난 것은 인공섬을 중국 영토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중국은 인공섬 조성을 통해 남중국해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려 한다는 게 미국 측 시각이다. 중국이 인공섬을 만드는 곳에는 원래 암초 2개가 자리했다. 만조 시에는 수몰하는 암초라 미국은 국제법상 영유권 및 영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중국은 미국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며 강력히 항의했다. 현장에서는 라센호를 감시·추적하면서 물러나라고 경고했다. 사실상 추격전이 펼쳐지며 일촉즉발의 위기상황이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무력 충돌로 가지는 않았다.

중국은 "국제법상 항해 및 비행의 자유를 존중하지만 이를 핑계로 중국 주권과 안보 이익을 훼손하는 것은 단호히 반대한다"고 했다. 또 "중국은 스스로의 영토 주권과 안보, 합법적이고 정당한 해양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다. 그 어떤 국가의 고의적인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송병형 기자

‘경제’ 56회·‘청년’ 32회·‘개혁’ 31회 언급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초점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부분 구조개혁 강조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왜곡·미화…좌시 않을것”

박근혜 대통령의 27일 취임 후 세번째 국회 시정연설 핵심 키워드는 경제와 청년, 개혁이었다.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정부 예산안 제출에 맞춰 국정운영과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을 국회에 설명하는 자리인 만큼 4대 개혁과 청년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경제 재도약 의지를 소상히 밝히는 데 상당부분을 할애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준비한 1만 2900여자 분량의 시정연설 원고에서 경제를 56회로 가장 많이 사용했다. 경제는 지난해 시정연설에서도 59회로 가장 많이 언급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올해 시정연설에서 내년도 예산안의 편성 배경과 활용 계획을 ▲기초가 튼튼한 경제 ▲역동적인 혁신경제 ▲내수·수출 균형 경제의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 소상히 설명하고 이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초점을 맞췄다.

경제에 이어 많이 사용된 단어는 청년으로 32번 언급됐다. 올해 안에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는 노동개혁이 고용절벽에 서 있는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최대한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며 그 당위성을 설파한 데 따른 것이다.

개혁은 31번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핵심과제가 내년도 예산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부분에 중점을 둬 설명했다.

이처럼 올해 시정연설의 3대 키워드가 경제, 청년, 개혁이 된 것은 내년도 예산안에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성과를 확산시키고, 미래세대인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4대 개혁을 뒷받침하겠다는 박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같은 국정구상에 따라 ▲일자리(27회) ▲국민(27회) ▲혁신(20회) ▲문화(18회) ▲예산(17회) ▲공공(11회) ▲미래(8회) 등도 여러차례 쓰였다.

◆ ‘교과서 국정화’ 짧지만 단호

이날 시정연설에서 가장 관심을 모았던 역사교과서 국정화 관련 언급은 연설 말미에 배치됐다. 관련된 단어로는 역사가 12번, 교육이 11번 쓰였다.

그러나 교과서 국정화를 언급한 대목에만 한정하면 역사는 11번, 교육은 2번, 미래는 3번 사용됐다. 역사교과서 부분에서만 등장한 단어인 ‘교과서’와 ‘국정화’도 각각 4번, 1번씩만 쓰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교과서 문제가 시정연설 전체 분량에서 차지한 비중이 크지 않은 탓이다. 하지만 “역사교육을 정상화 시키는 것은 당연한 과제이자 우리 세대의 사명” “역사 왜곡이나 미화가 있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지만 그런 교과서가 나오는 것은 저부터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 “역사를 바로 잡는 것은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되는 것이다” 등 그 표현은 어느 때보다 강경했다.

이같은 표현을 반영하듯 박 대통령의 어조와 몸짓도 교과서를 언급하는 대목에서 단호해졌다. 박 대통령은 연설 초반 차분한 어조로 간간히 미소를 띠며 말을 이어갔지만 국회에 수년째 계류 중인 주요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는 대목부터는 목소리의 톤이 올라갔다.

이어 노동개혁 5개 법안 통과, 한·중 등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 등을 강력히 촉구한 박 대통령은 역사교과서 문제를 거론한 대목부터는 소리를 지를 듯이 목소리가 커졌다. 미소가 사라진 표정에 눈빛은 단호했고 손짓에는 힘이 들어갔다.

박 대통령의 이날 시정연설 원고는 A4 용지로 20장, 200자 원고지로는 60여장에 달하는 분량이었다. 방대한 분량임에도 박 대통령은 상당기간 공을 들여 원고를 만들었으며 마지막 순간까지 꼼꼼히 수정·보완했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연설 직전까지 퇴고를 거치면서 당초 이날 오전 9시30분께 기자단에 배포되기로 했던 원고가 10여분 이상 늦게 배포되기도 했다.

◆ 野 ‘피켓 시위’로 연설 15분 늦어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연설시간도 예정보다 늦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 하지 않는 대신 ‘국정화 반대’ 피켓을 들고 본회의장에 입장키로 하면서다. 이 때문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개의를 미루면서 피켓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야당 의원들은 박 대통령이 볼 수 있게 피켓을 모니터에 내걸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시정을 요구하면서 소란이 일기도 했다.

결국 박 대통령은 예정보다 15분 늦어진 오전 10시15분께 본회의장에서 연설을 시작해 10시56분까지 약 42분 간 연설했다. 이 시간 동안 모두 54번의 박수가 나왔는데 여당 의원들의 박수 소리만 들렸다.

시정연설 말미에 역사교과서 내용을 박 대통령이 언급하기 시작하자 설훈·이목희 의원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일어나 먼저 퇴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연설을 끝내고 기립해 있던 여당 의원들과 일일이 악수하며 퇴장했다.

◆ 朴대통령, 3회 연속 시정연설

한편 이날 시정연설로 박 대통령은 국회에서 세 차례 연속으로 시정연설을 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역대 대통령의 정기국회 시정연설은 노태우(1988년)·노무현(2003년)·이명박(2008년) 전 대통령 등 3차례에 불과하며 통상 총리가 대독해 왔다.

그러나 박 대통령은 지난 2013년 시정연설에서 “매년 정기국회 때마다 직접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하며 의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구하는 새로운 정치문화를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고 올해도 그 약속을 지켰다.

이와 관련해 정 의장은 시정연설 전 개회를 선언하면서 “3년 연속 약속한대로 국회를 방문해서 예산안 시정연설하는 대통령께 감사하다”며 “대통령이 국회를 존중하니 국회도 대통령에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다시 한 번 당부한다”고 말했다.

/유선준 기자 rsunjun@metroseoul.co.kr

朴대통령, 방사청 종합대책 보고받아

“KF-X, 국가적 중대사… 기한내 성공시켜야”

<한국형 전투기>

4개 핵심기술 개발 계획

유럽 등 3개국 협력 방안

추진사업단 추진 등 보고

박근혜 대통령은 27일 청와대에서 장명진 방위사업청장으로부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 종합대책을 보고받은 뒤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장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예결소위에 참석, 박 대통령에 대한 KF-X 종합대책 보고와 관련한 의원들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고 국방위 소속 의원들이 전했다.

국방위 의원들에 따르면 장 방사청장은 예결소위에서 “박 대통령께서 보고 내용을 청취한 뒤 ‘KF-X 사업은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인 만큼 계획된 기한 내에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는 지침이 있었다”고 답변했다.

방사청은 KF-X 개발사업과 관련, 박 대통령에게 미국이 기술 이전을 거부한 AESA(다기능위상배열) 레이더와 IRST(적외선탐색 추적장비), EO TGP(전자광학 표적추적장비), RF 재머(전자파 방해장비) 등 4개 핵심기술에 대한 국내기술 개발계획과 3개국 협력방안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AESA 레이더는 2006년부터 국방과학연구소(ADD)와 방산업체인 LIG넥스원에서 개발 중이며 오는 202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AESA 레이더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30여개 기술 중 5개는 이스라엘과 영국, 스웨덴 등 해외 3개 국가와 부분 협력으로 개발하겠다는 계획도 보고에 포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청은 KF-X 개발 사업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장 직속으로 KF-X 추진사업단을 구성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장 방사청장과 정홍용 국방과학연구소(ADD) 소장의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를 받고 ‘상당히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미국의 핵심기술 이전 불가 방침 재확인을 계기로 KF-X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진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계획된 기한 내 사업 성공’이라는 지침을 하달한 것은 KF-X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지를 천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아울러 정치권에서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문책론을 제기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미국의 KF-X 기술 이전 불가에 대한 책임라인의 추가 문책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여기에도 박 대통령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유선준 기자

“수출 회복 땐 3% 후반대 성장 가능”

최경환 부총리

내수 활성화 대책 효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27일 올해 부진한 수출이 회복되면 앞으로 연 3% 후반대 성장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올해 4분기에는 3분기 회복세를 되살리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차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올해 마이너스인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과거 추세대로만 증가하면 3%대 후반 이상의 성장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올 3분기에 5년 만에 가장 높은 1.2%의 성장을 했다며 내수 활성화 대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내수가 수출 부진을 상당 부분 보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올 들어 3분기까지 내수 성장 기여도는 3.4%포인트, 순수출은 -1.0%포인트를 기록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기 회복 모멘텀이 4분기 이후 더욱 공고해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정부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 4분기에 9조원 이상을 유효 수요 확대에 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오늘 대통령께서 시정연설을 통해 강조하신 것처럼 국회에서도 이해관계를 떠나서 오직 국익과 청년 일자리 관점에서 노동개혁 등 4대 구조개혁 법안과 서비스산업 발전법안, 한·중, 한·베트남 FTA 비준안을 하루라도 빨리 매듭지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연미란 기자 actor@

서울대가 선택한 배곧신도시

놀라운 수익률 15%

아파텔
A·B·Dtype 마감
Ctype 마감임박

대학가, 신도시, 중심상권을 모두 누리는 자리!

모두가 탐내던 배곧신도시 중심상권에 신개념 상가 로얄팰리스 스퀘어 스트리트몰이 옵니다.
풍부한 수요에서 뛰어난 미래가치, 프리미엄까지 놀라운 투자가치를 더 특별하게 만나세요!

동급 최고의 전용률 | 층고 5.5M이상 | 권리금 無 신규상가 | 중앙 대형 팰리스가든 | 중심상업지구 유동인구 밀집 | 전용면적 대비 최저분양가

상기 조감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컷으로 실제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스트리트 몰이 대세다! 광장이 있어야 진짜다!

1개의 점포에서 2배의 수익을!
로얄팰리스 상가분양!

- 요즘 뜨는 스트리트몰 상가!
- 분양면적보다 넓은 서비스 면적 제공
- 초대형 신규상권 최대 수혜지
- 최대 층고 7M 상가

배곧신도시 최대상권의 중심에서 완벽한 성공을 잡으십시오!

신도시 중심상권인가? 서울대학교 국제캠퍼스 재학생들이 주목하는 제2의 대학가 상권 인근 복합 쇼핑몰, 신세계 프리미엄 아울렛, 롯데마트 등 집중

배후수요가 풍부한가? 시화, 반월, 남동스마트허브 38만여 명 근로자가 주목하는 상권 로얄팰리스 720세대 독점, 배곧신도시 56,000명이 다니는 길목

트렌드를 앞서가는가? 최신 스트리트 몰, 단지 중앙의 대형 팰리스 가든을 통한 집객 층고 5.5M 이상의 복층상가로 1개 점포에서 2배의 수익 창출

청약방법
- ■입금계좌 : 기업 021-644-6661
- ■청약금 : 100만원 ■예금주 : (주)로얄
- ■미 계약시 청약금은 전액 환불됨.

로얄팰리스 배곧
02)6334-9395

시행사 (주)로얄 / 베스트홀딩스(주) 시공사 다인건설(주) 신탁사

이통사 운명, '황금주파수'에 달렸다

SKT "재할당 해야" vs LGU+ "경매로 넘겨야"
내년 말에 기한 만료… 미래부, 구체적 방안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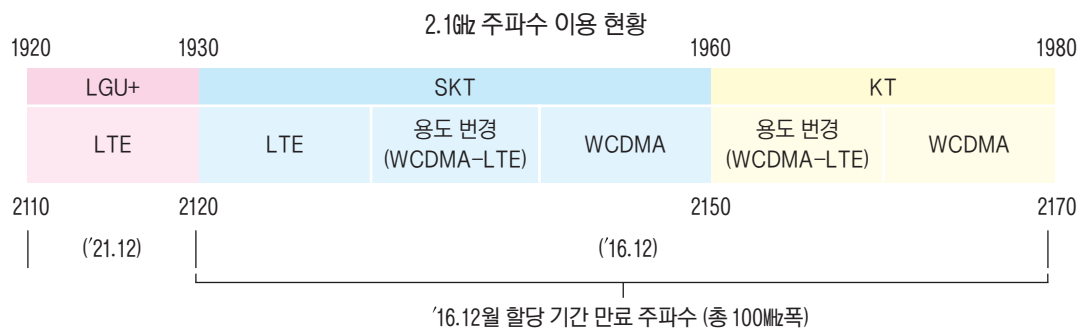
삼성전자가 시스템에어컨 사업을 키워 전체 에어컨 사업을 2020년까지 100억 달러(약 11조3000억원) 규모로 성장시키기로 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신제품을 대거 투입해 대표적인 B2B(기업간 거래) 사업인 시스템에어컨 부문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LTE(4세대 이동통신) 서비스에 사용 중인 이 주파수가 어느 회사로 가느냐에 따라 통신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각 사는 무슨 수를 쓰더라도 2.1㎓ 주파수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는 전략을 쓰고 있다.

주파수는 언뜻 보면 일반 이용자들과 큰 상관이 없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주파수 확보를 위해 이동사들이 투자를 하면서 이 비용을 고스란히 요금 책정을 위한 원가로 반영하기 때문이다. 결국 주파수 싸움이 이동통신 이용자들의 통신비로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2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른바 황금 주파수로 통하는 2.1㎓ 주파수 가운데 SK텔레콤과 KT가 사용 중인 100메가헤르츠(㎒) 대역폭의 사용기간이 내년 말 종료된다. 주무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는 사용기간 만료 1년 전인 12월 초까지 어떤 방식으로 주파수를 배분할지 결정해 공고해야 한다.

전파법에 따르면 사용기간이 종료된 주파수는 미래부가 회수해 경매에 부칠 수도 있고 기존 사용하던 통신업체에 재할당할 수도 있다. 최근 미래부는 100㎒ 폭 가운데 SK텔레콤이 LTE용으로 사용 중인 20㎒ 대역폭만 경매에 부칠 것으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100㎒ 대역폭 중 나머지 80㎒ 대역폭은 기존 사용 중인 SK텔레콤과 KT가 다시 재할당 받는다. 당연히 LG유플러스는 이에 반대하며 최소한 60㎒대역폭을 경매에 내놓으라고 주장하고 있다. 40㎒ 대역폭은 3세대 이동통신용으로 사용하고 있어 사실상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우리 회사의 LTE 가입자는 1820만명, KT는 1170만명, LG유플러스는 920만명"이라며 "가입자 1인당 LTE 주파수로 따지면 LG유플러스가 제일 많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많은 회사가 주파수를 많이 쓰는 것이 당연하다"는 주장이다. 2.1㎓를 쓰고 있는 KT도 "기존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주파수 사용 기한을 연장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LG유플러스는 현재 '3대 2대1' 비율로 사용 중인 2.1㎓ 주파수를 3사 공평하게 '1대1대1'로 만들어 공정하게 경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SK텔레콤과 KT는 새 주파수에 대한 투자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사용 중인 주파수 재사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주파수를 전부 회수한 뒤 세 통신사에 공평하게 나눠주든지 경매로 사용자를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1㎓은 대부분 국가에서 3G용이나 LTE용으로 쓰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휴대폰 업체들은 2.1㎓ 주파수를 기본 지원한다. 만약 2.1㎓ 주파수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이동통신사들은 전용 주파수에 맞춰 휴대폰을 다시 개발해야 한다. 그만큼 2.1㎓ 주파수를 갖고 있는 이통사는 휴대폰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 특히 LG유플러스는 현재 갖고 있는 주파수 대역과 경매 검토 대상인 SK텔레콤의 20㎒ 대역폭이 맞닿아 있어서 이를 확보하면 나란히 붙여서 광대역 LTE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된다.

미래부는 구체적인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다. 미래부 관계자는 "사용 만료되는 주파수 전체를 경매에 부치거나 일부만 경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미래부가 2.1㎓ 주파수 사용 기한이 만료되기 1년 전인 12월 3일까지 경매 원칙을 정해 공고하면 내년 상반기에 주파수 경매가 진행된다.

/정문경 기자 hm0108@metroseoul.co.kr

김형수 재단법인 미르 이사장을 비롯한 출연기업 관계자들이 27일 강남구 학동로에 위치한 '재단법인 미르 출범식'에서 현판 제막식을 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490억원 규모 문화재단 '미르' 설립

재계, 新 한류 확산 중점

국내 16개 주요 그룹들이 문화강국 기반 마련을 목표로 약 490억원을 출연해 문화재단을 설립했다.

삼성, 현대차, LG, SK 등 16개 주요 그룹은 27일 서울 강남구 학동로에서 문화강국 허브 구축을 위한 재단법인 '미르' 현판식을 개최했다. 미르 설립에 참여한 이들 주요 그룹들은 총 486억원의 출연금을 조성했다.

문화재단 미르는 앞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알릴 수 있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특히 엔터테인먼트 중심의 한류를 넘어 음식·의류·화장품·라이프스타일 등 신(新) 한류 확산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글로벌 문화교류 확산 △문화창조기업 육성 및 해외동반 진출 △한국 전통문화 가치 확산과 브랜드화 등의 사업을 주축으로, 경제분야에서의 '코리아 프리미엄'을 달성한다는 계획도 수립했다.

이밖에 재단 미르는 앞으로 △해외 각국과 상호 문화교류를 위한 공동 페스티벌 개최 △문화거리 조성 및 랜드마크 추진 △청소년 문화교류 촉진 등을 통해 글로벌 문화교류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에 나설 예정이다.

아울러 글로벌 통합 벤처단지 조성, 문화콘텐츠 창작자 발굴지원, 콘텐츠 박람회 등 문화창조기업 육성과 해외 동반진출 지원체계 구축도 지원할 방침이다.

재단 미르의 김형수 이사장은 "개별적으로 문화재단 등을 운영하던 기업들이 재단 미르를 통해 다양한 협력 사업과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문화융성의 혜택을 전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문경 기자

SK 경영진 '따로 또 같이' 3.0 체제 강화 나서

제주도서 2박3일간 세미나
내년 성장방안 등 모색

최태원 SK 회장(사진)이 계열사 최고경영자(CEO)들과 2박3일간 내년 경영전략 마련에 나선다.

SK그룹은 주요 계열사 CEO들이 28일부터 2박3일간 제주도에서 '따로 또 같이 3.0을 통한 새로운 도약'이란 주제로 내년도 성장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SK그룹은 최근의 국내외 경영환경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상태에서 산업별 회복 속도가 더뎌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번 CEO세미나 기간에 내년도 그룹 단위의 성장방안 등을 중점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CEO세미나에는 최태원 회장과 김창근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을 비롯해 임형규 정보통신기술(ICT)위원장, 정철길 전략위원장(SK이노베이션 사장 겸임), 하성민 윤리경영위원장 등 7개 위원회 위원장과 장동현 SK텔레콤 사장, 박성욱 SK하이닉스 사장, 조대식 SK 사장 등 16개 주력 관계사 CEO와 관련 임원 등 40여명이 참석한다.

특히 SK그룹은 지난 2013년 초부터 도입된 새로운 지배구조 체제인 '따로 또 같이'의 3.0 체제가 장기간의 위기 속에서도 성과가 있었다고 보고, '따로 또 같이' 3.0 체제를 보다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키로 했다.

'따로 또 같이' 3.0은 관계사별 자율책임경영을 전제로 관계사가 자사 이익과 성장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위원회에 참여해 그룹 차원의 글로벌 공동 성장을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 이번 CEO세미나에서는 ▲그룹 운영체계의 진화·발전 ▲SK의 바람직한 기업문화 ▲SK의 사회공헌 발전방향 등도 함께 논의될 예정이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

LG전자, 英 다이슨 '허위광고'로 제소

LG전자는 지난 12일 영국 청소기 업체 다이슨을 상대로 호주연방법원에 허위광고 금지소송을 제기했다고 27일 밝혔다.

LG전자는 자사의 프리미엄 무선 청소기 '코드제로 싸이킹'이 더 강력한 흡입력을 갖추고 있는데도 다이슨이 무선 청소기 V6 제품 광고에 '가장 강력한 무선청소기' '다른 무선 청소기 흡입력의 두 배' 문구를 사용하면서 소비자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전자에 따르면 코드제로 싸이킹 흡입력은 최대 200W(와트)로 다이슨 V6제품(최대 100W)의 두 배 수준이다.

LG전자 역시 지난 글로벌 프리미엄 청소기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전략제품인 코드제로 싸이킹을 올해 초 한국을 시작으로 중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등에 출시했다. 호주에는 지난 9월에 출시했다.

코드제로 싸이킹은 최대 출력전압 80V의 LG화학 리튬 이온 배터리 파워팩을 내장해 4시간 충전으로 일반 모드 기준 최대 40분, 강 모드에서도 17분 동안 청소가 가능하다.

LG전자는 2003년 로봇청소기 '로보킹'을 시작으로 2013년 '코드제로 침구킹(침구청소기)', 지난해 '코드제로 핸디스틱' 청소기에 이어 올해초 '코드제로 싸이킹'을 내놓은바 있다.

/정은미 기자

열매 맺은 구본무 리더십… 中 배터리공장 기공

<난징>

LG화학

韓-美-中 3각 체제 가동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
2020년까지 단계적 투자

구본무 회장.

중국 난징 전기차 배터리 공장 조감도. /LG전자

LG화학이 중국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선도할 핵심 생산기지인 난징 공장을 준공했다.

LG화학은 이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으로 '오창(한국)-홀랜드(미국)-난징(중국)'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본격 가동하게 됐다. 고성능 순수 전기차 18만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전기차(PHEV) 기준 65만대라는 세계 최대 생산능력을 발판 삼아 시장 선점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구본무 회장의 뚝심

LG화학은 27일 중국 난징시 신강 경제개발구에서 남경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식 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준공식에는 구본무 LG 회장을 비롯해 구본준 LG전자 부회장, 박진수 LG화학 부회장,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등 계열사 주요 경영진은 물론, 장레이 강소성 부성장, 류이안 난징시 상무부시장 등 중국 정부 관계자, 김장수 주중대사, 한석희 주상해 총영사 등 주중 한국 정부 인사도 참석했다.

특히 구본무 LG 회장은 지난 2010년 미국 미시간주 홀랜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기공식, 2011년 충북 오창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식에 이어 이번 난징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식까지 참석했다. 배터리 사업을 글로벌 시장선도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LG의 배터리사업은 지난 1991년 당시 그룹 부회장이었던 구 회장이 출장길에 영국 원자력연구원(AEA)에 들렀다가 충전해서 반복 사용이 가능한 2차 전지 샘플을 직접 가져와 개발토록 하면서 시작됐다는 일화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성과는 쉽게 나오지 않았고 수년간의 투자에도 불구하고 실패와 적자를 거듭하자 일부에서 사업을 접자는 의견도 있었다. 하지만 구 회장은 "이 사업은 우리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다독이며 전지 시장을 이끌었다.

그 결과 현재 LG화학은 전기차 배터리를 비롯한 중대형 배터리 분야에서 세계 경쟁력 1위로 평가 받는 등 2차 전지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핵심 생산기지 완성

LG화학 난징 전기차 배터리 공장은 축구장 3배 크기인 2만5000㎡ 면적에 지상 3층 규모로 지어졌다. 연간 고성능 순수 전기차 5만대 이상(320㎞ 이상 주행 가능 전기차 기준), PHEV 기준 18만대 이상에 배터리 공급이 가능하다. 특히 현지 고객 요구에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셀(Cell)-모듈(Module)-팩(Pack)까지 일괄 생산체제로 구축됐다.

LG화학은 중국 완성차 1위 상하이차, 2위 둥펑, 3위 디이 등 톱10 중 절반 이상을 고객사로 확보했고 합작사를 포함해 16개 업체로부터 수주를 받고 있다. 2016년 이후 현지에서 공급할 물량 100만대분 이상을 이미 확보했다.

2020년까지 단계적 투자로 생산 규모를 현재보다 4배 이상 늘려 고성능 순수 전기차 20만대 이상(PHEV 기준 70만대)에 배터리를 공급할 생산 체제를 갖출 계획이다.

중국 전기차 배터리 매출을 2020년까지 연간 1조5000억원 이상으로 끌어올리고 시장점유율 25% 이상을 달성한다는 목표다.

◆시장 선점 본격화

LG화학은 이번 중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 준공으로 '오창-홀랜드-난징'으로 이어지는 전기차 배터리 글로벌 3각 생산체제를 완성했다. 특히 LG화학은 주요 시장에서의 현지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향후 미국과 중국 공장은 현지에서 수주한 물량을 생산하고, 오창에선 국내 수주물량 생산과 함께 전체적인 공급 밸런스를 담당할 계획이다.

또 LG화학은 유럽에서도 수주 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향후 유럽 현지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인 B3에 따르면 전기차 배터리 시장은 2013년 32억6000만 달러(약3조7000억원)에서 2020년 182억4000만 달러(약 20조7000억원)로 5배 이상 성장할 전망이다.

권영수 LG화학 전지사업본부장 사장은 준공식에서 "이번 준공으로 세계 최대 전기차 시장인 중국에서 의미 있는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며 "난징 공장이 세계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생산기지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n@metroseoul.co.kr

'취항 7돌' 에어부산, 매출 70배 가까이 성장

누적탑승객 2000만 돌파
전체 직원은 7배 이상 ↑
항공 특가 이벤트 실시
일본, 12만1200원부터

에어부산 직원들이 기내서비스 하트인사를 하고 있다. /에어부산

부산 김해국제공항에 기반을 둔 지역 대표항공사 에어부산이 27일 취항 7주년을 맞았다.

동남권 지역민의 항공 편의 증진을 위해 태어난 에어부산이 2008년 10월 27일 부산-김포 노선에 취항했을 때 에어부산 항공기는 2대였으며 전체직원은 100여명이었다. 이후 비행기 1대를 추가 도입해 12월 부산-제주 노선에 취항한 에어부산의 2008년 매출액은 58억원을 기록했다. 7년이 지난 2015년 10월 27일 에어부산은 항공기 15대와 전체직원 760여명으로 국내선 3개 노선·국제선 15개 노선 총 18개 국·내외 노선에 취항하며 연 4000억원의 매출액을 올리는 탄탄한 지역항공사로 발전했다.

첫 취항 후 지난 9월까지의 누적 수송객은 국내선 1532만명(77%)·국제선 450만명(23%)으로 총 1982만명을 수송했다. 지난 13일 국내 저비용항공사 가운데 최단기간 누적 탑승객 2000만명 돌파 기록을 세웠다. 국제선 지역별로는 동남아 노선 118만명(26%)·일본노선 227만명(51%)·중국노선 105만명(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취항 7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에어부산은 다채로운 이벤트도 준비했다. 27일 부산김해국제공항에서 출발하는 에어부산의 모든 국내선 기내에서는 좌석번호 추첨을 통해 각 편당 7명의 손님에게 부산의 대표 먹거리인 어묵과 기장미역 등 기념선물을 증정한다.

또 에어부산 홈페이지(airbusan.com)를 방문하면 7주년 기념 특가항공권도 판매한다.

판매기간은 27일 10시부터 30일 자정까지이며 탑승기간은 11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다. 부산 출발 왕복 기준 총액운임(기본운임+유류할증료 공항시설사용료)이 △일본노선 12만1200원 ~ △중국노선 12만8200원~ △동남아노선 16만9600원~ 으로 현재 에어부산이 운항중인 국제선 15개 노선(일본노선 3개·중국노선 6개·동남아노선 5개·대양주노선 1개)과 오는 12월 3일 신규취항 예정인 일본 삿포로 노선까지 모두 이번 할인행사에 포함된다.

/양성운 기자 ysw@

순위로 본 '세계 속의 대한민국'

휴대폰 출하량 1위, 반도체 매출액 2위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硏
연구개발·통신 부문 선두
에너지자립도 여전히 취약

지난해 우리나라는 휴대폰·반도체·선박·자동차 등 제조업 분야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차지한 반면, 노동·사회 분야에서는 선진국과 상대적 격차가 존재하고 에너지 자립도는 여전히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제조업은 휴대폰 출하량(1위), 반도체 매출액(2위), 선박수주·건조·수주잔량(2위) 등의 부문에서 세계 최상위권을 유지했다. 자동차 생산대수(5위), 조강생산량 (6위) 등에서도 선두 그룹에 속했다. 반면 서비스수출(1070억달러)과 서비스수입(1150억달러)은 지난해 기준 각각 16위, 13위를 차지해 제조업에 비해 미흡한 수준을 보였다.

또 포천(Fortune) 500대 기업에 우리나라 기업 16개가 포함돼 세계 7위를 차지했고, 글로벌 브랜드가치 분야에서는 삼성이 전년보다 한 단계 높아진 7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노동과 사회부문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부분은 선진국과의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경제활동 참가율(57.0%, 30위), 출산율(1.26명, 169개국 중 166위), 국민 1인당 연간 노동시간(2124시간, 3위), 삶의 질(5.40, 40위) 등은 낮은 수준에 머물면서 경제적인 성취가 삶의 질 향상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 부문도 석유 소비량 8위, 원유 수입 5위 등으로 에너지 자립도 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했다.

한편 무역부문에서는 2014년 기준 수출은 세계 7위, 무역규모는 9위, 무역흑자 규모는 13위로 세 분야 모두 2013년과 동일한 순위를 차지했다.

국제무역연구원은 매년 170여개의 경제, 무역, 사회지표 기준 한국의 세계 순위를 정리한 '세계 속의 대한민국'을 발간하고 있으며, 관련 내용은 국제무역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다.

/정문경 기자 hm0108@

“원하는 것 모두 다 모바일로”… 카카오가 연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

진정한 모바일 시대 시작
사람중심 경영에도 앞장

“모바일을 기반으로 사람과 서비스를 연결해 가치를 제공하는 온디맨드(On-Demand)에 집중하겠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취임 한달여 만인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 본사 스페이스닷원 멀티홀에서 첫 공식 기자간담회를 갖고 카카오를 이끄는 새로운 리더로서 현재 추진중인 사업 방향과 미래를 제시했다.

이날 임 대표는 “사용자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모바일로 언제든 제공하는 온디맨드를 통해 모바일 2.0 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사람중심의 경영과 스타트업과 비스니스 생태계 활성화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의 모바일 서비스는 기존 PC에서 이용하던 기능들을 모바일로 이식하는 초기 단계였다”며 “스마트폰으로 모든 실물경제 활동이 가능해지는 진정한 모바일 시대는 이제부터 시작이고 온디맨드 환경 구축을 통해 과거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지훈 카카오 대표가 27일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에 위치한 카카오본사에서 회사의 사업 방향과 미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카카오

그는 앞으로 카카오택시와 같은 O2O 서비스는 물론 콘텐츠와 검색, 게임, 광고, 금융 등 모든 실물경제를 모바일로 연결해 이용자가 원하면 언제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임 대표는 카카오 대표로 내정된 8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조직을 깊이있게 파악하고 임직원들과 폭 넓게 소통하며 카카오의 미래 방향성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공식 취임 한달을 맞이한 소회를 전했다.

임 대표는 “케이큐브벤처스 창업때부터 지켜온 경영철학인 ‘사람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직원 수 3000명(자회사 포함)에 달하는 카카오를 이끌어 갈 것”이라며 “이를 위한 첫번째 실천으로 직원 100명과 일대일 대화를 나누는 ‘템미 프로젝트’를 대표이사 내정 후 한달간 진행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통해 직원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모바일 시대에 맞춰 회사를 변화시킴은 물론 개인의 역량을 높이고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업 문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이 같은 직원들의 요구에 맞춰 비지니스 방향성과 속도감을 불어 넣을 수 있는 CXO 조직을 신설하는 한편, 오랜 개발자 경험을 가진 엔지니어 출신의 기업문화 팀장을 선임했다고 말했다. 서비스 개발의 핵심인 개발자와 기획자들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제안하고 이를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임 대표는 아울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와 비즈니스 파트너들과의 협력 강화를 통해 대한민국 모바일 서비스 생태계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카카오는 2010년부터 지금까지 스타트업에 약 4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집행했으며 플랫폼 사업자로서 커머스, 게임, 콘텐츠 등에서 연 2조4500억원 규모의 연관매출을 파트너와 함께 창출하고 있다”며 “스타트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더 많은 파트너들이 카카오 플랫폼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강한 스타트업 및 모바일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임 대표는 “제가 가장 자신있고 잘하는 것은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을 믿어 주는 것”이라며 “이러한 개인적 소신이 벤처투자에서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이유였고 이는 카카오에서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경영에 최우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기자회견에 앞서 카카오의 제주 본사 건물이 스페이스닷원과 스페이스닷투를 공개했다. 닷원은 5개 층으로, 닷투는 2개 층의 건물로 직원들의 업무와 소통을 극대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날 언론에 처음 공개된 닷투에는 프로젝트를 활성화하고 도와주기 위해 프로젝트 룸 6개와 공동작업장인 ‘땀’, 가볍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휴게공간 ‘바이오스(BIOS)’ 등이 있으며 중앙 복도에 화장실과 수돗가를 배치해 직원의 만남과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일조량 따라 스마트폰으로 커튼 열고 닫는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2일 상암사옥에서 글로벌 파트너사들이 모인 가운데 국내외 IoT 오픈에코 생태계 활성화 방향을 논의하는 IoT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LG유플러스

LGU+, 佛 솜피사와 업무제휴

앞으로는 장시간 집을 비울 때 일조량에 따라 커튼을 조절해 실내 온도를 적정으로 유지하고, 집에 들어가기 전 커튼을 미리 닫아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LG유플러스는 프랑스 전동 차양시스템 세계 1위 기업 솜피의 한국지사인 솜피코리아와 손잡고 홈 IoT 솔루션 제공을 위한 사업협력 계약(MOU)를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양사는 가정 내 차양, 사생활 보호, 인테리어를 위해 설치한 커튼과 블라인드에 IoT기능을 넣어 자동 제어뿐 아니라 LG유플러스의 ‘IoT@홈’ 플랫폼과의 연동을 추진한다. LG유플러스의 IoT 플랫폼과 솜피의 차양시스템이 상호 연동됨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원격으로 가정 내 커튼과 블라인드를 자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게 된다.

LG유플러스는 솜피와 함께 LG유플러스 전국 대리점을 통한 판매는 물론 건설업체와의 제휴를 통해 신축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할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CJ헬로비전 “5명 추천하면 통신비 반값”

CJ헬로비전은 자사 알뜰폰 브랜드인 ‘헬로모바일’에서 내년 1월 22일까지 ‘친구추천반값플랜’을 운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친구추천반값플랜은 친구 추천으로 온라인 직영숍 ‘헬로모바일 다이렉트’를 통해 가입하는 고객에게 통신비를 할인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CJ헬로비전

SK플래닛 ‘시럽 페이’, 제휴 사용처 확대

SK플래닛의 간편결제 서비스 ‘시럽 페이’가 사용 가능한 제휴가맹점을 대폭 확대한다.

SK플래닛은 27일부터 T스토어의 영화, e북, 만화, 쇼핑 등 콘텐츠 구매 시 시럽 페이를 통해 결제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상품을 선택 후 시럽 페이 결제 버튼을 누르면 별도의 추가설치 과정 없이 결제 비밀번호 입력만으로 결제할 수 있으며 ‘T스토어’ 내에서 손쉽게 가입도 가능하다.

SK플래닛은 다음달 초 현대H몰의 온라인·모바일 쇼핑몰에 시럽 페이를 적용하는 한편, 국내 대표 인터넷 서점인 인터파크 도서, 예스24에도 연말까지 순차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온라인·모바일 쇼핑분야의 제휴 가맹점 확대와 함께 연내 새롭게 출시될 T맵 택시 2.0의 요금결제 수단으로 시럽 페이를 제공해 온·오프라인 연계(O2O) 시장으로의 본격적인 확대를 추진한다.

시럽 페이는 국내 모든 신용카드사의 발급 카드를 등록해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최초 웹 기반 원클릭 간편결제 서비스다. PC와 스마트폰 어디서든 애플리케이션, 보안프로그램 등 어떤 추가 설치도 필요없으며 보안이 한층 강화된 독자적인 결제 인증 체계를 갖고 있어 고액 결제 시에도 추가인증을 할 필요가 없다.

지난 4월 오픈 마켓 11번가에 처음 적용된 이후 PC는 물론 태블릿, 스마트폰 등 다양한 모바일 쇼핑환경에서 편리함이 입증돼 출시 6개월만에 가입자 120만명, 누적 거래액 1200억원을 돌파했다. /정문경 기자

SK브로드밴드 신용등급 ‘A-’로 상향

SK브로드밴드는 국제 신용평가사인 피치사가 자사의 신용등급을 기존 BBB+에서 한 단계 상향한 A-(안정적)로 부여했다고 27일 밝혔다.

SK브로드밴드는 유무선과 통신 방송 결합 추세에 따라 더욱 강화된 SK텔레콤과의 사업공조와 SK텔레콤 완전 자회사화 이후 SK플래닛의 ‘호핀’ 사업부문을 인수하는 등 그룹 내 SK브로드밴드를 중심으로 한 미디어 사업 성장에 대한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 최근 보조금 중심에서 상품·서비스 중심으로 통신시장 경쟁 패러다임이 변화함에 따라 유무선 통합 경쟁력과 서비스 품질 강화를 바탕으로 한 SK브로드밴드의 유선 통신 시장에서의 견고한 시장지위 유지가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정태철 SK브로드밴드 경영지원 부문장은 “이번 피치의 신용등급 상향조정은 미디어 플랫폼 벨류 및 유무선 통합 경쟁력 제고를 반영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미디어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급변하는 미디어·통신 시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외 신인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문경 기자 hm0108@

은행·보험, 증권사 보다 IT투자 적극적

핀테크 시장 선점 경쟁 인력·투자예산 늘어나

하나금융·우리은행 등 핀테크 상품 속속 출시

은행과 보험사가 금융투자회사보다 정보기술(IT) 투자에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과학기술과 금융의 융합을 의미하는 핀테크(Fintech) 영역을 선점하기 위한 은행권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은행들은 저마다 핀테크 대표 은행임을 내세우며 핀테크 업체와 함께 기술개발에 나서고 있다.

27일 한국은행과 자본시장연구원에 따르면 2014년 말 기준 은행보험금융투자회사의 IT 인력은 8333명이었다. 이는 2006년과 2012년에 비해 각각 19%, 8% 늘어난 것이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2012년 이후 해킹사고와 전산장애 사건이 터지면서 IT 보안의 중요성이 커졌다"면서 "금융권의 IT인력 수요 증가, 특히 보험업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금융 권역별 IT예산 추이 (단위:억원)

년도	은행	금융투자	보험
2003	17,211	6,707	8,067
2004	18,857	5,302	8,143
2005	18,052	4,538	7,288
2006	21,285	5,019	8,350
2007	23,097	6,902	10,157
2008	24,600	8,803	10,608
2009	22,142	9,050	10,451
2010	19,691	10,435	12,059
2011	20,611	10,435	12,137
2012	23,131	9,787	14,921
2013	20,237	8,679	13,732
2014	21,754	8,128	16,792

/자료=한국은행

보험사의 IT 인력은 2496명으로 2006년 대비 73%나 늘었다. 2012년보다는 45%나 증가했다.

반면 금융투자회사의 IT 인력은 1760명으로 2006년보다는 24% 증가했지만, 2012년 대비 6% 가량 감소했다.

IT예산은 편차를 보였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보험 금융투자업의 IT 총 예산은 4조6674억원으로 2005년 대비 56%나 늘었다. 2011년보다는 8% 증가했다.

업권별로는 은행 IT예산은 2조1754억원으로 2005년과 2011년에 비해 각각 21%, 6% 늘었다.

핀테크 시장에 대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나금융은 최근 계열사 포인트 제도를 통합한 '하나멤버스' 서비스를 출시했다. 하나금융은 또 상대방 전화번호만 알아도 송금할 수 있는 간편 송금 시스템인 '원큐 트랜스퍼'도 이르면 다음달 중 출시할 예정이다.

신한금융은 잠재력을 갖춘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신한 퓨처스랩'을 중심으로 앞으로 다가올 '핀테크 격전'에 대비해 실력을 키우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퓨처스랩 출범 이후 유망 업체를 선정해 서울 충무로의 전용공간에서 사업 모델 개발을 지원해 왔다. 최근에는 외화송금 모델을 선보인 '스트리미'와 차세대 문서보안 기술을 개발한 '블로코' 등 스타트업들의 성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은행은 모바일 기반의 중금리 신용대출시장을 개척한 '위비뱅크'를 앞세워 핀테크 전략을 세심히 가다듬고 있다.

최근에는 위비뱅크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개인사업자의 모바일 전용 대출인 '위비 SOHO 모바일 신용대출'을 출시했다.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와 빅데이터를 활용한 대출심사를 통해 무방문·무서류·무담보로도 대출받을 수 있도록 했다.

KB국민은행은 최근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KB캠패드 시스템(KB Cam Pad System)'을 선보였다. 핀테크 전략을 총괄하는 KB금융지주는 핀테크 스타트업 집중육성 프로젝트 'KB스타터스 밸리(KB Starters Valley)'를 통해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보험권은 2011년 보다 38% 증가한 1조6792억원이었다. 2005년에 비해서는 130%나 증가했다.

반면 금융투자사들의 IT 예산은 8128억원으로 2011년 대비 59%나 줄었다.

총예산 대비 IT 예산 비중은 금융투자사가 11.4%로 2010년 보다 1.7%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사의 이 비중은 6.4%로 2010년 5.7% 보다 늘었다. 은행은 9.9%로 최근 내림세에서 소폭 증가세를 보였다.

자본시장연구원 김규림 연구원은 "지속적인 IT 투자 및 관리노력이 장기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 창출과 컴플라이언스 비용감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컨설팅업체 셀렌트(Celent)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의 올해 IT지출은 1967억 달러로 전년 대비 4.6% 증가할 전망이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구조조정 시급… 핵심은 옥석 가리기"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은행권에 선제대응 당부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사진)이 시중은행장에게 정상화 할 수 있는 기업은 살려야겠지만 한계기업은 신속히 정리할 수 있도록 기업 구조조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금융개혁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진 원장은 2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10개 시중은행장을 초청해 조찬 간담회를 열고 "최근 중국발 경제위기 우려, 미국 금리인상 가시화 등 대외 리스크가 크게 부각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대내외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선 "원활한 구조조정과 충분한 충당금적립 등 선제적인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 원장은 "구조조정 추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정확한 옥석가리기'"라며 "이를 통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함으로써 자원이 생산적인 부문으로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그는 "살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선 적극 지원해서 막연한 불안감으로 인해 억울하게 희생되는 기업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 원장은 내년부터 글로벌 자본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세계 경제 불안, 기업여신·가계부채의 부실 우려가 지속하고 있다며 은행들의 대응을 주문했다.

그는 "은행별로 보수적인 관점에서 엄격하게 스트레스테스트를 실시해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리스크 관리와 자본 확충에 나서야 한다"고 독려했다.

진 원장은 지난 7월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핵심 내용인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거의 확정됐다고 전하고 "은행별로 내년부터 실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충실히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문호 기자

스마트폰에 신용카드 대면 결제 끝

'터치형 NFC간편결제' 삼성카드, 연내 서비스

삼성카드가 국내 핀테크 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동시에 고객을 대상으로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

삼성카드는 27일 한국 NFC·KG이니시스와 업무제휴 계약을 맺고, 터치형 NFC간편결제 서비스를 연내 출시한다고 밝혔다.

NFC간편결제는 모바일 쇼핑을 할 때 신용카드 실물 터치와 비밀번호 2자리 입력만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후불교통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를 스마트폰 뒷면에 터치(왼쪽)하고, 이어 신용카드 비밀번호 앞 2자리를 입력한다. /삼성카드

모바일 결제가 익숙하지 않은 고객도 편리하게 쇼핑을 즐길 수 있다.

NFC간편결제는 NFC칩 인식 기능이 있는 휴대폰에 후불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삼성카드를 터치하는 방식으로 이용 가능하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정부의 핀테크 육성 정책에 발맞춰, 핀테크 스타트업과 협업하는 동시에 멘토링 및 지원도 지속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국내 핀테크 경쟁력 강화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정필 기자 roman@

'저축의 날' 기념, 금융재산 지키기 '팁3'

"소중한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

① 예금자보호상품 확인
② 휴면계좌 조회 활용
③ 피싱 등 금융사기 주의

금융감독원은 27일 저축의 날을 기념해 현명한 저축을 위한 정보와 소비자 유의사항 등 금융재산 지키기를 안내했다.

금감원은 시리즈 2편인 '금융재산 이렇게 지키세요!'를 통해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을 소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우선 금융재산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때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인지를 살펴봐야 한다.

정부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지급해 주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예금자보호대상 상품에는 은행에서 판매하는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적립식예금 등과 보험계약, 어음관리계좌(CMA), 자기앞수표 등이 해당된다. 다만 예금자보호제도는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보호대상 금융상품만 원리금을 보장해 주며 금융회사별로 예금자 1인당 원금과 소정이자를 합해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어 유의해야 한다.

휴면계좌 조회시스템을 활용해 숨어있는 재산을 찾아내는 것도 금융재산을 지키는 방법이다. 금융소비자는 휴면계좌 통합조회시스템(www.sleepmoney.or.kr)을 이용하거나 은행, 보험사, 우체국 점포를 방문해 휴면예금이나 보험금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보이스피싱, 스미싱과 같은 금융사기도 주의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선 안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진화해 연령, 직업, 계층과 상관없이 대국민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전화를 통한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기법 외에도 스마트폰을 통한 스미싱 메시지로 개인 금융정보를 탈취하고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보배 기자 bobae@

환매 늘어나는 펀드 시장… ‘채권혼합형’ 강세

ELS 손실 우려로 돌아서는 추세
해외 주식형 펀드도 흥행 이어져

코스피지수 2000선에 오르자 환매 물량이 늘어 펀드시장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있지만 유독 자금이 몰리는 펀드가 있다. 바로 채권혼합형 펀드다.

펀드투자자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리스크가 큰 주식보다는 초저금리 속에서 ‘금리+알파(α)’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짙다. 안정된 채권 수익률과 일부 주식투자 수익을 취하겠다는 전략이다.

대표적인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각광받던 주가연계증권(ELS)이 투자자에게 실망감을 안겨준 것도 발길을 돌리게 했다.

27일 금융정보업체인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채권 혼합형에 유입된 자금은 6조4285억원에 달한다.

펀드 내 60% 가량의 자산은 우량 국공채를 사들여 일정 이자 수익을 챙기고 나머지 40% 미만을 주식으로 담는 구조다.

특히 KB자산운용이 단연 돋보인다. KB자산운용은 KB가치배당40채권혼합, KB퇴직연금배당40채권혼합, KB밸류포커스30채권혼합 등을 통해 총 2조8500억원 가량 자금을 끌어모았다. 1년 성과가 다른 펀드를 웃돌고 있다.

회사 측은 “중위험·중수익의 꾸준한 장기 수익을 추구하는 투자자의 관심이 집중된 결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다만 중소형주 비중이 높아 최근 조정장에서 하락폭이 컸다는 점을 감안할 때 투자자 입장에선 적절한 분산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미래에셋단기국공채공모주증권투자신탁(채권혼합)과 이스트스프링퇴직연금인컴플러스40증권자투자신탁(채권혼합)에도 1000억원 이상의 자금이 들어왔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ELS에 대한 손실 우려가 커지면서 불안을 느낀 투자자들이 주식 비중을 20%, 30%, 40%씩 채우는 채권혼합형 펀드로 투자 비중을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해외 주식형펀드에도 연초 이후 3조7101억원의 자금이 유입됐다.

해외 주식형펀드의 흥행은 KB, 삼성, 슈로더자산운용이 주도했다. 지난해 높은 상승세를 기록했던 중국본토, 일본, 유럽펀드로 대부분의 자금이 유입됐다. 슈로더는 유럽펀드로, 삼성은 중국본토펀드로 자금이 집중된 반면 KB는 일본, 중국본토, 유럽펀드로 골고루 자금이 유입됐다.

NH투자증권 문수현 연구원은 “선진국 시장에 대한 장기 적립투자와 중국시장에 대한 고수익 니즈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가가 2000선을 넘어서자 국내 주식형펀드는 찬밥신세가 됐다. 연초 후 유출된 자금만 약 4조7398억원.

시장에서는 코스피 2020~2030선이 강력한 저항선으로 인식된다.

증시 전문가들은 “코스피의 120일 이동평균선이 2020~2030선에 있어 주식형 펀드 투자자의 환매 욕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며 “여기에 중국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된 것도 주식 매도의 핑계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주식형 펀드 시장에서 존 리(메리츠자산운용 대표) 열풍은 지속되고 있다. 그는 메리츠코리아주식형펀드로 약 1조 2300억원 가량의 투자금을 모았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유형별 자금유입 현황 (단위:억원)

유형	펀드수	설정액	연초이후	1년	2년	3년	5년
국내주식형	867	536,863	-47,398	-28,536	-40,347	-99,155	-19,668
국내혼합형	717	200,871	64,285	71,151	98,934	110,666	110,486
국내채권형	206	146,614	32,666	41,876	55,930	58,550	69,467
MMF	142	960,910	177,821	89,882	256,687	246,184	232,656
해외주식형	721	199,498	37,101	23,359	-17,050	-70,835	-224,240
해외혼합형	237	38,638	3,674	1,990	524	11,044	-9,412
해외채권형	142	51,464	444	-1,830	-14,573	728	25,602
국내부동산	10	8,382	-39	-51	-110	-667	408
해외부동산	24	9,268	-574	-944	-3,002	-2,510	-6,403
대안투자형	432	72,170	13,184	13,670	17,311	29,190	43,976
기타형	234	7,612	-1,650	-981	-4,547	-5,207	-4,990

/자료=에프앤가이드, 27일 기준

유안타증권 ‘위 크리에이트 포춘랩’
체계화된 자산배분으로 인기만점

유안타증권의 글로벌자산배분형 랩어카운트(Wrap Account) ‘위 크리에이트 포춘랩(We Create Fortune Wrap)’이 투자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크리에이트 포춘 랩 유안타증권의 글로벌자산배분회의와 자산배분모델을 통해 결정된 자산별 비중에 따라 국내·해외의 엄선된 펀드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 분산투자하는 상품이다. 각 펀드는 투자대상의 벤치마크+알파(α) 수익을 추구하는 동종유형 내 최상위권 펀드로 선별, 지속적인 리밸런싱(rebalancing)을 통해 펀드 교체와 수익률 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우선 상품기획팀, PB지원팀, Wrap운용팀이 매월 자산배분회의를 통해 중장기 투자유망 자산과 향후 운용 전략을 논의한다. 이를 토대로 랩 운용팀이 개발한 자산배분모델에 따라 주식·채권·원자재의 주요 자산군과 투자선호도를 분석해 수익률이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 비중을 산출하는 식이다.

이 상품은 성과보수형으로 기본 연 1.2% 후취수수료(분기별 0.3%)에 목표수익률 연 5% 초과수익분의 20%를 성과보수로 징수한다.

최소 1000만원부터 가입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전국 영업점과 고객지원센터(1588-2600)에 하면 된다.

/김보배 기자

바이오벤처 ‘아이진’ 코스닥 이전 상장
유원일 대표 “글로벌기업 도약”

바이오 의약품 기업 아이진이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한다.

유원일 아이진 대표(**사진**)는 27일 서울 여의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15년 동안 허혈성 질환 치료제와 백신개발을 위해 많은 특허를 내고 검증을 거쳐 왔다”며 “핵심 원천 기술을 보유한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아이진은 당뇨망막증, 욕창 등 노화에 의한 허혈성 질환 치료를 위한 바이오 신약 개발과 기존 백신의 성능을 개선한 자궁경부암 예방백신 개발 등에 주력해오고 있다.

‘허혈(Ischemia)’이란 노화 등으로 인체 조직으로의 혈액 공급이 제한돼 세포가 손상되는 현상이다. 최근 고령화 사회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관련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가 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허혈성 질환 중 하나인 당뇨망막증은 당뇨 때문에 합병증이 생긴 후천적 실명의 주요 원인이다.

아이진의 당뇨 망막증 치료제인 ‘EG-Mirotin’은 기존 치료제가 노인성 황반변성을 타겟으로 하는데 비해 세계 최초로 비증식성 당뇨망막증의 치료를 위해 개발돼 독점적 시장을 구축하고 있다.

유 대표는 “VisionGain사에 따르면 2020년까지 전세계 당뇨 망막증 시장 규모는 3조3000억원을 넘을 예정”이라며 “현재 프랑스에서 진행 중인 임상이 마무리되는 내년 상반기 이후 글로벌 제약사로의 라이센싱 아웃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방암과 더불어 대표적인 여성 질환 중 하나인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백신 ‘EG-HPV’는 아이진이 기존에 출시된 타사의 자궁경부암 예방 성능을 개선시킨 프리미엄 백신이다. 이는 자궁경부암뿐만 아니라 대상포진, 탄저, 결핵, B형 간염, 6 인플루엔자 등 다양한 질환 예방에서도 효능이 입증됐다.

아이진은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 각각 30억7200만원, 20억9000만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유 대표는 “임상 실험 단계인 프로젝트가 내년부터는 성과를 보일 것”이라며 “신약은 글로벌 바이오 회사와 라이센스 계약을 진행하고 백신은 인도, 러시아 등 이머징 마켓을 공략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9~30일 수요예측에 이어 다음달 4~5일 일반투자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받아 11월 중 이전 상장될 예정이다. 공모 희망가는 1만2000~1만3500원이고 상장주관사는 NH투자증권이다.

/김보배 기자 bobae@

3분기 ‘실적 선방’ SK이노베이션… 배당매력 상승

SK이노베이션이 시장 예상치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을 발표함에 따라 주가 흐름도 긍정적이다. 특히 시장에서는 SK이노베이션의 배당매력을 주목하고 있다. 이와 함께 4·4분기 실적은 일회성 비용 감소 등을 예상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은 27일 주식시장에서 11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달 들어서만 현재까지 20% 이상 올랐다.

SK이노베이션은 3·4분기 12조4475억원의 매출과 3639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고 최근 공시했다. 유가 하락 등의 요인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매출은 25%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644% 상승했다. 당기순이익은 165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흑자전환 했다.

윤재성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SK이노베이션의 3·4분기 영업이익은 당사 추정치인 737억원을 크게 웃돌았다”며 “적자를 우려했던 정유부문의 재고평가손실이 생각보다 적었고 분기 초 확대된 제품 마진을 고정시켜 전략적으로 판매해 이익이 크게 개선됐다”고 분석했다.

윤 연구원은 “4·4분기 영업이익은 매출채권 1700억원의 일회성 비용과 윤활유 비수기여서 소폭 감소가 예상된다”면서도 “SK이노베이션의 연말 예상 DPS(보통주에 대한 현금 배당금)는 2800원으로 현 주가 기준 2.4%의 시가배당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컴플렉스(CLX) 수출 현장. /연합뉴스

신한금융투자는 SK이노베이션에 대해 투자의견 ‘매수’와 목표주가 15만원을 유지하고 있다.

/김보배 기자

2015 House View

시장을 먼저 읽어라

달러자산에 투자하라.

달러자산에 투자하세요.
해외투자,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안정적 가치상승이 예상되는 달러자산에 대한 투자를 더 늘려야 합니다. 특히 기술과 혁신의 중심인 미국은 1년이상 장기투자에서 가장 유망합니다.

달러를 이동하세요!

달러도 연 2.0% 수익률 (3개월 예치시, 세전, 2015.04.06기준, 달러가치 하락시 손실 발생 가능)

대신증권 달러RP 특별판매

대상: 개인고객(신규/기존)
한도: 개인별 1만$ ~ 50만$
수익률:연2.0% (기본수익률 연0.9% + 추가수익률 연1.1%)
*3개월 이후, 가입시점의 수시 RP이율 적용

고객 감동센터 1588 – 4488

*당사는 금융투자상품의 특징, 수수료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고객님은 충분한 설명을 들으신 후 자신의 책임과 판단 하에 투자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USD RP 입금액은 달러화 표시 외화증권에 투자되며,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판매회사 지급불능시 증권예탁결제원에 고객분으로 구분예탁된 유가증권(원금 105% 이상)을 보유 및 처분 가능) *USD RP는 환율변동에 따라 원화 환산 시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USD RP 수익률은 입금 시 당사가 고시하는 약정수익률이 적용되며, 당해 수익률은 시장금리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단, 수익률 변경 이전 매수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까지 매수시 약정한 수익률을 적용) *USD RP에 가입하시기 전에 반드시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USD RP 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또는 고객감동센터(1588-4488)로 문의 바랍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5-02943호 (2015-04-28 ~ 2016-04-27)

대신증권
Daishin Securities

강남 입성 기회… 1만3000가구 분양대전

일반분양은 3000가구
송파 가락동 최대물량 헬리오시티 1558가구
2억 안팎 입성 가능한 문정지구 눈여겨볼만

연내 강남 3구 분양 물량 (*는 오피스텔, 자료 : 각 사)

구분	위치	단지명	전용면적(㎡)	총가구수 (일반분양)	분양시기 (월)	시공사
송파구	문정지구 8-4블록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17~37	531 (531)	10	현대건설
	가락동 479	송파 헬리오시티	39~150	9510 (1558)	11	삼성물산,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오금동 B3블록	송파 호반베르디움	101	220 (220)	12	호반건설
서초구	서초동 1331-1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	59~134	593 (147)	분양중	삼성물산
	반포동 32-5 일대	반포 래미안아이파크	49~150	829 (257)	11	삼성물산 현대산업개발
	잠원동 66	신반포자이	59~156	607 (153)	하반기	GS건설
	잠원동 64-8	아크로리버뷰(미정)	59~84	595 (41)	11	대림산업
강남구	삼성동 22	삼성동 센트럴 아이파크	49~170	416 (93)	11	현대산업개발

2013년 11월 12억5848만원에 분양된 서울 대치동 래미안 대치청실 91.93㎡(전용면적)는 지난 8월 15억9500만원에 거래됐다. 분양 2년 만에 3억3000만원 이상 오른 것이다.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313.80㎡ 호가는 분양가보다 20억원이나 오른 55억원을 웃돌고 있다.

강남 아파트 입성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브랜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분양가가 3.3㎡당 4000만원을 돌파했고 이마저도 수십 대 1의 청약경쟁률을 뚫어야 당첨이 가능할 정도로 경쟁이 치열하다. 강남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진 시점은 지난해부터다.

브랜드 프리미엄과 단지 규모, 입지여건에 힘입어 수도권의 웬만한 아파트 한채값을 차익으로 챙기는 사례가 생기자 전국 각지에서 장롱 속 청약통장까지 꺼내 들고 청약행렬이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9월 말 기준 최근 1년간 청약경쟁률은 신규공급이 없던 송파구를 제외하고 △강남구 47대 1 △서초구 26대 1 등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이에 따라 연말까지 분양되는 아파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남에선 연내에 1만3301가구 중 3000가구가 일반에 공급될 예정이다.

강남3구 중 분양대전이 예상되는 곳은 송파구다. 9510가구 규모의 미니신도시급 재건축단지 '송파 가락 헬리오시티'를 비롯해 2억원 안팎의 자금으로 입성할 수 있는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오피스텔)이 분양된다.

현대건설은 최근 '힐스테이트 에코 문정'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오피스텔 분양에 돌입했다. 지하 6층~지상 15층, 1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기준 17~37㎡ 오피스텔 531실이다.

일반적인 스튜디오형 외에 전체의 약 48%를 천장고 3.2m의 복층형으로 구성했다. 약 10%는 최근 인기가 높은 복층형·테라스형으로 설계했다. 또한 아파트 수준의 커뮤니티시설과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삼성물산은 서울 서초동에 '서초우성2차'를 재건축한 '래미안 서초 에스티지S'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32층, 5개 동, 전용면적 59~134㎡ 593가구 규모다.

지하철 2호선 강남역이 도보권에 있다. 서이초·서운중이 단지에서 걸어서 5분 내외 거리에 있고 서울교대부속초, 서일중, 서초고, 은광여고, 양재고 등이 가깝다.

현대산업개발·현대건설·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시공을 맡아 서울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 헬리오시티'는 11월 분양 예정이다. 지하 3층~지상 35층, 84개 동에 전용면적 39~150㎡, 9510가구 규모다. 이 중 1558가구가 일반분양된다. 단지 내에 신설되는 신가초교와 중대초교, 가락초교, 석촌초교, 삼전초교와 배명중·고, 가락고, 잠실여고 등을 걸어서 다닐 수 있다. 롯데백화점과 롯데월드몰(잠실), 롯데마트(송파), 가든파이브, NC백화점 등의 쇼핑시설도 가깝다.

현대산업개발과 삼성물산은 서초구 반포동 32-5번지 일대 서초한양아파트를 재건축한 '반포 래미안아이파크'를 11월 분양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4층 11개동, 전용면적 기준 49~150㎡ 829가구로 구성됐다. 센트럴시티와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뉴코아 아울렛,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서초구립반포도서관 등 대규모 복합상업시설과 의료시설, 도서관 등이 가깝다.

/박상길 기자 sweatsk@metroseoul.co.kr

냉난방비↓실공간↑… 성냥갑 아파트 '인기'

채광 통풍 남향배치 유리 대부분 가구 일조권 확보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 일부 평형 360.33대 1 기록

분양시장에서 '판상형(板狀形)' 아파트로 불리는 '성냥갑 아파트'가 다시 인기를 끌고 있다.

판상형 아파트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고, 남향 배치도 타워형 아파트보다 편리해 대부분의 가구가 일조권을 확보할 수 있다. 또한 냉난방 효율도 좋아 관리비가 적게 들고,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장점이다.

최근에는 4베이 설계가 더해져 작은 평형도 중대형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1일 '별내 효성해링턴 코트'의 청약접수 결과 전체 27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7702명이 몰려 평균 28.3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최고경쟁률은 복층형인 전용면적 84㎡H타입에서 360.33대1(기타경기지역)이다. 이 타입은 다락방과 테라스공간을 서비스면적으로 제공해 수요자들의 높은 관심을 끌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최근 분양 아파트엔 한가지 요소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면에서도 특장점을 원하는 수요자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이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에 공급하는 센트럴 푸르지오는 1956가구 모두 선호도 높은 74㎡·84㎡의 중소형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전체의 84%인 1648가구에서 판상형과 포베이를 동시에 선보인다.

적용되는 타입은 84㎡A1·2, 84㎡B, 84㎡C1·84㎡C2 5개 타입이다. 단지 대부분은 남향위주로 구성돼 쾌적함을 높였다.

GS건설은 경기도 오산 세교택지개발지구 B-5블록에서 오산세교자이를 분양 중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 전용면적 75~83㎡ 1110가구 규모이며 전 가구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호반건설이 인천가정지구 5블록에서 분양중인 가정 호반베르디움 더센트럴은 지하 1층, 지상 24~25층, 10개동 980가구 전용 73~84㎡ 규모다. 전세대 4베이, 중소형 혁신설계로 조성된다.

중흥건설 계열사인 중흥토건은 이달 세종시 3-1생활권 M6블록에 세종 중흥S-클래스 에듀퍼스트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전용면적 84~109㎡, 지하 1층~ 최고 29층, 23개동, 1015가구 규모다. 판상형, 4베이 구조로 구성돼 맞통풍과 채광에 유리하다.

/박상길 기자

금호산업, 신규수주 1조5000억원 돌파

워크아웃 기간 최대 실적 연말까지 2조5000억 기대

금호산업이 경영정상화를 앞두고 잇달아 대형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연일 신기록을 달성하고 있다.

27일 금호산업에 따르면 최근 강화된 수주역량을 통해 신규수주 1조5000억원을 돌파했으며 특히 공공수주에서는 7000억원으로 업계 4위를 달성했다.

주요 수주 프로젝트는▲광주 북구 우산구역 재개발 ▲인천생산기지 저장탱크 ▲하남미사 25블록 19공구 등이다.

광주 우산구역은 수주금액 2092억원으로 2500여가구의 대형 재개발사업이다. 인천생산기지저장탱크는 수주액 2197억원으로 인천신항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 내 20만㎘급 가스저장탱크 3기를 시공하는 플랜트 공사다. 688가구 규모의 하남미사 25블록 19공구 수주액은 1091억원이다.

금호산업 측은 경영정상화를 앞두고 신규 수주가 증가하면서 경영실적 개선세가 뚜렷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호산업 관계자는 "대형 프로젝트를 잇달아 수주하면서 이 기세를 몰아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기간 중 사상 최대의 수주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영정상화 이후 현재 17위인 시공능력평가순위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 연말까지 신규수주 2조5000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민자사업, 해외사업 등 사업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면서 공격적인 경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금호산업의 도약을 기대해 달라"고 덧붙였다. /박상길 기자

KL 118 타워 조감도. /삼성물산

삼성물산, 118층 동남아 초고층빌딩 수주

삼성물산은 말레이시아 국영 투자기관인 PNB 자회사가 발주한 공사비 8억4200만달러 규모의 'KL 118 타워(664m) 프로젝트'를 수주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지하 5층 지상 118층, 전체면적 67만 3862㎡의 복합개발 시설을 짓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49개월이며 2019년 12월에 준공 예정이다.

삼성물산은 현지 시공사인 UEM사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품질과 안전관리 등 공사 총괄을 수행한다. 삼성물산 지분은 60%(5억500만 달러)다.

삼성물산은 세계 최고층 부르즈칼리파(162층·828m) 등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과 UAE 등과의 경쟁을 뚫고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박상길 기자

SK "워커힐-동대문 잇는 면세점 벨트 구축"

면세점 2차 대전… SK네트웍스 ③

"23년 면세점 운영 비결 살려 세계적 관광메카로 변신 할 것"

사회환원에 2400억 투입키로

서울 시내 면세 사업자 선정을 10여일 앞둔 가운데 SK네트웍스가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 위한 전략을 27일 발표했다. 이날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은 도심 복합리조트로, 동대문은 면세사업과 '11가지 상생약속'을 통해 세계적 관광지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SK네트웍스는 사회 환원에만 240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경우 2020년까지 워커힐·동부권·동대문을 연계하는 '이스트 서울·이스트 코리아' 관광벨트를 조성할 계획이다.

◆동대문을 세계적 관광 메카로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은 이날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워커힐 면세점 사업을 바탕으로 동대문에 각종 인프라를 구축해 면세쇼핑뿐만 아니라 관광, 숙박,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네트웍스는 동대문 면세점 특허권을 두고 두산그룹과 경쟁하고 있다. 전날 두산은 200억원 규모의 '동대문 미래창조재단'을 설립해 지역상생형 면세점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SK네트웍스는 11가지 상생약속으로 응수했다. 주요 내용은 ▲신진디자이너·소상공인 지원펀드 ▲전통시장 문화·편의시설 구축 ▲관광환경 업그레이드 ▲전통시장 활성화 등이다. 여기에 투입되는 자금만 1500억원 규모다.

이날 문 사장은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사업자가 6개월 이내에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23년의 워커힐 면세점 운영 노하우, 상생능력 등을 발휘해 지역밀착형 상생면세점으로서 관광산업에 기여하겠다"며 두산을 겨냥한 발언도 거침없이 내뱉었다.

27일 문종훈 SK네트웍스 사장이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본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면세점 사업 비전·전략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SK네트웍스

SK네트웍스 측은 동대문 면세점 유치를 통해 2020년까지 외국인 관광객 1300만명을 유치하고 중소기업 제품 판매를 2000억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실제로 SK네트웍스는 중소기업 전기밥솥 제품인 쿠쿠를 면세품으로 판매해 유커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다.

동대문 면세점 입지는 케레스타 빌딩으로 선정했다. 7개 층에 4918평 규모로 들어선다. 전체 매장의 50%를 국산품 전용매장으로 구성하고 이 중 75%를 중소기업 제품 공간으로 배치할 예정이다. 매출 목표는 2020년까지 1조2000억원으로 잡았다.

◆워커힐 면세점 수성에 자신감

워커힐 면세점은 특허권이 내달 16일 만료되지만 연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리뉴얼이 한창이다. 권미경 면세사업본부장은 워커힐 면세점의 향후 운영방향을 품격과 스타일을 강조한 고급화로 제시하면서 면세점 사업 특허권 수성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권 본부장은 "워커힐 면세점은 입지에 따른 차별화 전략을 바탕으로 시계·보석 브랜드와 국산품까지 투입된 명품 면세점으로 자리잡아 왔다"며 "올해도 시계·보석 상품은 더욱 강화됐고 글로벌 명품브랜드도 지속 유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워커힐 면세점 유치 시 SK네트웍스는 관광 랜드마크에 500억원, 투자·홍보에 300억원, 관광인프라 구축에 100억원 등 총 9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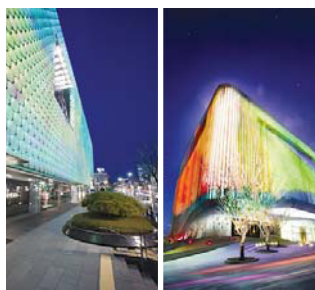
그랜드 오픈 이후에는 워커힐 면세점은 3746평으로 확대된다. 2020년가지 1조4000억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관람차, 분수쇼와 같은 랜드마크를 개발하고 지역축제, 평창동계 올림픽 등 강원도 연계 관광상품 개발에도 나설 예정이다.

SK네트웍스는 워커힐 면세점과 동대문 면세점 유치 시 2020년까지 누적매출 8조7000억원을 예상하고 있다. 나아가 공항면세점, 말레이시아, 필리핀 등 글로벌 면세사업 진출도 추진할 계획이다.

문 사장은 "23년의 면세점 운영 역량, SK의 상생철학, 최고 수준의 ICT(정보통신기술)역량을 결집해 한국관광산업 도약을 위한 새로운 전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정용기 기자 yonggi@metroseoul.co.kr

한화갤러리아, 환경부장관상 수상

갤러리아명품관 웨스트(왼쪽)와 갤러리아백화점 센터시티. /한화갤러리아

태양광 발전시스템 확대 등 고객위한 친환경캠페인 성과

한화갤러리아는 27일 '2015년 대한민국 친환경 유공 정부포상'에서 친환경 소비·생산 부문에서 환경부장관상을 수상했다.

갤러리아백화점은 전 지점이 환경부 녹색매장이다. 태양광 발전시스템 확대를 비롯해 고객과 내부 직원에게 친환경생활을 위한 캠페인·체험 활동을 벌이고 있다. 갤러리아명품관은 옥상에 독립형 태양광 발전설비를 통해 에너지저장시스템·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2011년에는 환경친화적 매장과 지속 가능한 지점 운영성과를 인정받아 갤러리아 전 지점이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받았다. /정용기 기자

홈플러스가 수능을 앞두고 수능족집게 랍스터를 선보인다. 홈플러스 영등포점에서 모델들이 '수능 족집게 랍스터'를 알리고 있다. /홈플러스

홈플러스 '족집게 랍스터'로 수험생 응원

"체력 보충·기분전환 되길"

홈플러스가 오는 29일부터 내달 4일까지 전국 141개 점포에서 랍스터와 킹크랩을 할인·초특가 판매한다.

내달 12일 수능을 보름 여 앞두고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 홈플러스는 신한·현대·삼성 카드로 결제 시 랍스터(미국산·마리 당 500g 내외)를 1만2000원에, 킹크랩(러시아산)은 100g당 4000원에 판매한다.

1년에 한 번 탈피(껍질갈이)를 하는 랍스터는 그 어획 시기에 따라 하드쉘·폼쉘·소프트쉘로 나뉜다. 10월 말에 어획된 랍스터는 폼쉘로 갑각질이 단단하고 살이 차오르는 시기여서 특유의 맛과 향이 좋다. 랍스터는 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함량이 적고, 단백질 및 오메가3, 키토산 등 성분이 풍부하여 수험생의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이여람 홈플러스 수산팀 바이어는 "수능을 앞두고 수험생을 응원하고자 일주일간 랍스터 특별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며 "랍스터로 체력도 보충하고 기분 전환도 하여 수능에서 모든 수험생이 120% 실력 발휘하기를 기원하는 의미로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전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농협유통

노지감귤 오늘부터 판매

농협유통이 28일부터 '노지감귤'을 전점에서 선보인다.

감귤은 겨울 과일로 9월 '하우스감귤'에 이어 10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노지감귤이 출하되고 있다. 노지감귤은 하우스가 아닌 밭에서 재배한 감귤이다.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노지감귤을 전점에서 시세대비 20% 저렴한 가격인 5kg(박스)에 1만2900원에 선보인다. /정용기 기자

GS샵

'라이브 배송' 서비스실시

GS샵이 배송원의 위치와 담당 배송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라이브 배송' 서비스를 27일 시작한다.

라이브 배송은 배송 날짜와 예상 도착 시간을 안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재 배송원이 어디쯤 와있는지 지도상에서 볼 수 있다. 배송원의 남은 배송지점 개수와 도착 예정시간을 분 단위까지 확인 할 수 있다.

또 방문할 배송원이 누구인지 사진과 이름도 미리 확인할 수 있다. 배송과 관련해 문의사항이 생겼을 때 '통화하기' 버튼으로 배송원과 통화도 할 수 있다. /정용기 기자

호텔신라

요우커 만족도 1위 선정

호텔신라는 27일 '한중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한중경영대상'과 '요우커 만족도지수' 면세점 부문 1위 기업으로 선정됐다.

한중경영대상은 중국 언론인 인민일보의 온라인판 인민망과 한국마케팅협회가 주관하는 시상식이다. 한국과 중국의 학계·언론계 등 전문가 심사위원회가 우수 기업을 선정·시상한다. /정용기 기자

동원, 환자 맞춤형 간편식 진출 초읽기

개발 완료 연말 중 출시
병원, 환자용 제품 환영
1인가구 증가 추세 호재

동원그룹이 연내에 HMR(Home Meal Replacement·가정간편식) 시장 진출을 위한 채비를 마쳤다.

27일 동원그룹에 따르면 지난 2월 강남세브란스 병원과의 MOU(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환자용 맞춤 HMR 연구를 마친 상태다. 올해 안에 온라인몰을 통해 환자식, 반조리식품, 반찬류 3개 상품군에서 다양한 HMR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동원그룹측은 정확한 제품 수를 공개하긴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다양한 고객의 상황, 취향 등을 고려한 맞춤형 HMR 제품 다수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했다.

국내 HMR 시장은 노령화와 1, 2인 가구의 증가로 식자재 유통사업과 함께 고성장이 가능한 시장이다.

세계 시장조사기관 데이터모니터에 따르면 HMR관련 시장은 연평균 5.2%씩 성장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 HMR시장 규모는 3조2970억 달러(약 3528조원)다. 국내 시장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1, 2인 가구의 증가로 높은 성장이 예상된다. 통계청에 따르면 2000년 1인 가구수는 222만명 수준이었으나 2010년 414만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현재 HMR 시장은 절대강자가 없다. 편의점에 도시락을 납품하는 식품기업들이 그나마 안정적인 시장을 보유한 정도다. 대기업의 진출이 드문 시장인데다 절대강자가 없는 만큼 동원의 HMR시장 진출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다.

HMR진출을 위한 포석이었던 세브란스병원과의 MOU 체결에 대한 의료계의 반응도 호의적이다. 강남세브란스 병원과의 협업으로 개발된 환자용 맞춤 식사는 병원이 각 환자에 대한 정보만 전달하면 동원이 맞춤형 식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지난 2월 16일 동원그룹의 식품 계열사 동원홈푸드와 강남세브란스 병원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환자용 간편식 개발에 착수 했다. 현재 연구가 완료된 상태며 내달 중으로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할 예정이다. /동원그룹

서울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한 원장은 "먹거리를 잘 아는 식품기업이 맞춤형 식단과 메뉴를 제공한다면 어느 병원이든 환영할 일"이라며 "본격적인 출시 이후 병원에서의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동원은 우선 온라인몰에서만 HMR 제품을 유통할 계획이며 향후 다른 유통채널로의 확대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이다.

동원 관계자는 "개발이 완료된 올해 당장의 매출 신장을 기대할 수는 없지만 내년을 기점으로 달라진 동원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그룹 차원에서도 HMR 시장에 총력을 다하고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자체적인 평가도 훌륭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원그룹에서 식품을 담당하는 동원 F&B는 지난해 1조794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82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김성현 기자 minus@metroseoul.co.kr

새로 나왔어요

해태제과 '순%퀴노아 군만두'
퀴노아 분말로 빚은 건강 간식

해태제과는 국내 최초 퀴노아로 만든 군만두 '순% 퀴노아 군만두'(사진)를 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퀴노아는 세계 10대 슈퍼푸드로 중 하나로 '곡물의 어머니'로 불린다. 칼로리는 낮지만 쌀에 비해 7배 이상 많은 칼슘, 단백질, 비타민, 철분, 식이섬유 등의 영양성분을 보유한 것이 특징이다. 순% 퀴노아 군만두는 퀴노아 분말로 만두피를 빚었으며 만두소에는 부추, 양파, 양배추, 새송이 버섯 등 국산 농산물로 속을 채웠다. 인공감미료, 합성착색료, 합성착향료 등의 인공첨가제를 넣지 않아 안정성도 뛰어나다. 가격은 450g 기준 4900원. /김성현 기자

카페베네, 겨울 신메뉴 6종
파스타·그라탕 브런치 변신

카페베네가 식사대용 신메뉴 6종을 출시했다. /카페베네

카페베네는 브런치 콘셉트의 겨울 신메뉴 6종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카페베네는 카페에서 간단한 식사를 해결하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메뉴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에 출시된 신메뉴는 파스타·리조트메뉴인 ▲핫칠리그라탕 ▲로제펜네 ▲크림&치즈리조또와 샌드위치메뉴인 ▲크랩멜트 ▲튜나멜트와 ▲햄잉글리쉬머핀 등이다. 가격은 파스타·리조트류가 6300원, 샌드위치류가 6500원이며 잉글리쉬머핀은 3800원이다. /유현희 기자

페르노리카 코리아 '임페리얼 네온'
스카치 원액에 과일향 가미

페르노리카 코리아가 '임페리얼 네온'(사진)을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수퍼 프리미엄급 위스키인 '임페리얼 네온'의 네이밍은 밤을 빛내는 대표적인 상징인 네온 사인을 모티브로 했다. 네온사인에서 즐거움과 엔터테인먼트를 자연스럽게 연상할 수 있듯이 임페리얼 네온은 소비자가 모여 즐거움을 공유하는 시간이 더 빛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담은 것. 100%의 스카치 원액으로 만들어진 임페리얼은 부드러운 목넘김을 위해 과일향과 헤이즐넛 향을 가미했다.

450㎖ 기준 출고 가격은 2만2385원(VAT포함)이다. /유현희 기자

뚜껑하나 바꿨을 뿐인데… 3년 만에 2억개

사조참치 '호일뚜껑' 효과
안전강화에 소비자 만족

참치업계 2위 사조참치가 호일 형태의 뚜껑을 도입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7일 사조해표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처음 출시한 '사조참치 안심따개' 시리즈가 3년여만에 누적판매 2억개를 돌파했다. 이에 따라 사조해표는 닭가슴살 캔, 연어캔 제품군에 관련제품을 확대하고 있다.

사조해표는 판매 호조의 배경을 기존 강철따개 캔이 갖고 있던 위험성을 보완하고 개봉의 안전성과 편리성을 부여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그 동안 강철따개 캔은 손가락 베임 사고 등 부상의 위험이 높다는 불만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소비자원에따르면 소비자들이 통조림을여는 과정에서상해를 입는 사고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동안 800건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13년 초 소비자원이 발표한 '식료품캔 위해 사례'에 따르면 참치캔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캔 뚜껑 사고의 80%를 차지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사조해표는 소비자 불만을 적극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12년 8월 국내 참치캔 제품 중 유일하게 '안심따개' 방식을 적용하게 됐다. 기존의 원터치캔이 강철뚜껑을 '따는 방식'이었다면 안심따개는 알루미늄 호일을 가볍게 '벗겨내는 방식'으로, 캔 개봉 또는 폐기시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상해 사고의 위험을 줄인 것이다.

알루미늄 호일을 적용해 기존 강철따개 캔 대비 3분의 1의 힘으로도 개봉이 가능토록 한 것도 장점이다. 뚜껑 뿐만 아니라 캔 본체의 뚜껑 접촉면도 둥글게 처리해 폐기 시에도 다칠 위험도 줄였다.

사조해표의 안심따개는 지난해 2월 산업부가 선정한 포장용기 우수 사례에 선정되기도 했다.

사조해표 마케팅팀 임대영 차장은 "안전성과 편리성을 강화한 사조 안심따개를 한번 사용해본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 지속적인 재구매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 안전을 우선 고려하는 식품기업으로서 안심따개를 알리는 안심 캠페인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현희 기자 yhh1209@

롯데리아, 지하철서 홈서비스 누리세요

QR코드 연동 '스마트 홈 서비스'

롯데리아는 지하철 광고물 QR코드 인증으로 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홈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스마트 홈 서비스는 지하철 스크린도어에 설치된 광고물에 홈서비스 주문이 가능한 QR코드를 연동한 시스템이다. 스마트 홈 서비스를 통해 고객들은 별도의 모바일 앱(APP) 설치나 웹 주소 검색 없이 QR코드 인증만으로 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롯데리아는 우선 고객들이 선호하는 6종 세트 메뉴에 대해 스마트 홈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하철 2호선 신도림 역에 선치된 롯데리아 '스마트 홈 서비스' /롯데리아

홈서비스 주문은 8000원 이상 주문 시 배달이 가능하며 6종 제품을 가상 스토어에서 주문하면 20% 할인된 다. /김성현 기자

가을 머금은 한강… 걸음마다 추억 쌓인다

걷기 좋은 한강 길 Top 7

낭만적인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싶다면 주말에 한강 길을 걸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27일 서울시는 도심 속 숨겨진 보물 같은 산책길 '한강 걷기 좋은 길' 베스트7을 소개했다.

◆ 난지 갈대바람길

강바람을 맞으며 산책도 하고 싶고 동시에 캠핑도 즐기고 싶다면 난지한강공원의 산책코스가 제격이다.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생태습지원이 조성돼 있고 캠핑장까지 마련돼 있으니 가족이나 연인과 오붓하게 캠핑 분위기를 낼 수 있다. 난지한강공원의 갈대바람길은 강변물놀이장에서부터 생태습지원까지 이어지는 1.7㎞ 코스다.

6호선 월드컵경기장역 1번 출구로 나온 뒤 월드컵경기장 남측월드컵공원 정류장에서 8776번 버스를 탑승, 물놀이장에서 하차하면 된다.

◆ 반포 수변길

반포 수변길은 반포대교에서 동작역 방향으로 강을 따라 걷게 조성돼 있다. 버드나무, 갈대, 물억새, 갯버들 등을 만날 수 있는 고즈넉한 산책 코스다. 특히 야간에는 반포대교에서 달빛무지개분수를 가동해 연인들의 데이트 코스로도 유명하다. 10월에는 평일 총 3회, 휴일 총 6회가 가동된다. 아름다운 음악을 들으며 음악분수 공연을 감상한 후 동작역 방향으로 걷다보면 수변길에 다다른다.

3·7호선 고속버스터미널역 3, 4, 8번 출구 및 4·6호선 삼각지역 13번 출구에서 셔틀버스 8401번 연계. 또는 4·9호선 동작역 1, 2번 출구에서 한강 방면으로 200m 이동하면 된다.

◆ 뚝섬 숲속길

피톤치드 가득한 맑은 공기와 신선한 흙내음을 맡을 수 있는 흙길로 꾸며진 숲속길을 걷고 싶다면 뚝섬 숲속길을 추천한다. 뚝섬한강공원에는 울창한 수목사이로 한두 사람이 지나다닐 수 있을 만한 통로의 500m가량의 오솔길이 나있다.

숲속길을 따라 걷다보면 각종 유실수인 모과, 감나무, 산수유, 매실, 대추나무를 볼 수 있다. 산책로가 끝나는 곳에는 40여 종의 장미가 심어진 장미원이 이어진다. 내년 봄이 오기 전까지 장미는 월동에 들어가므로 이번 주말에 찾아보면 좋을 듯하다.

7호선 뚝섬유원지역 2, 3번 출구로 나와 잠실대교 방향으로 300m 이동하면 된다.

◆ 고덕 자갈길

고덕수변생태공원 내에 조성된 3㎞의 생태탐방로는 이미 웰빙 산책로로 유명한 곳이다. 답답한 빌딩 숲을 벗어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고 있다.

산책로에는 생태연못, 저습지, 건생초지 등이 자리잡고 있어 서식하는 딱새, 노랑지빠귀, 황조롱이, 오색딱따구리 등을 눈앞에서 관찰할 수 있다.

5호선 명일 전철역 3번 출구에서 2, 5번 버스를 타고 주공 APT 후문 하차 후 강동구 음식물 재활용 센터로 진입하여 100m 이동하면 된다.

◆ 강서 물새길

강서습지생태공원의 산책로인 강서 물새길은 개화나들목부터 출발해 행주대교 방향으로 1㎞ 정도 이어진 구간으로 많은 물새를 만날 수 있는 다채로운 코스다. 물새길은 뛰어난 생태환경과 자연을 간직하고 있어 사진가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한강 주변에 가을 정취가 완연하다. /서울시

반포 수변길, 데이트에 제격
뚝섬 숲속길, 흙내음에 힐링
강서 물새길, 철새들의 천국

뚝섬 숲속길. /서울시

암사 생태산책길. /서울시

공원 주차장을 나와 약 1㎞의 흙길을 걷다보면 물억새와 갈대가 바람에 휘날리는 모습과 함께 물 위를 떠다니는 민물가마우지, 큰기러기, 왜가리, 흰죽지 등 도심에서는 보기 힘든 철새들의 무리를 쉽게 만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뛰어노는 고라니까지 만날 수 있다.

5호선 방화역 1, 2번 출구로 나와 마을버스 06번을 타고 강서습지생태공원에서 하차하면 된다.

◆ 암사 생태산책길

암사나들목부터 상류로 1㎞에 걸쳐 조성된 산책길이다. 오솔길처럼 조성된 산책길에는 철새나 물새를 인기척 없이 바라볼 수 있게 만든 조류 전망대도 있다. 특히 이곳은 흰빰검둥오리, 큰기러기 그리고 돌무더기 주위에 굴뚝새 등 조류를 관찰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 아이들의 자연 배움터로 안성맞춤이다.

8호선 암사역 4번 출구로 나와 한강 방향으로 500m 이동하면 된다.

◆ 잠실 어도탐방길

잠실한강공원에서 한강 수변 쪽 산책로를 따라 걷다보면 잠실수중보의 시원한 물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 어도 탐방길의 시작이다. 잠실수중보는 하천에서 물고기가 상류로 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한 228m 길이의 생태 통로로 참게, 피라미, 두우쟁이, 누치, 잉어 등 다양한 물고기들이 이동한다. 모험심이 솟구치는 아이들과 함께라면 100% 만족할 수 있는 산책 코스다. 또 잠실수중보 옆으로 흩날리는 갈대들이 운치있게 자리잡고 있어 가을 낭만이 한껏 묻어난다.

2호선 성내역 4번 출구에서 장미아파트 내 도로를 이용해 성내역 나들목으로 400m 이동하거나 성내역에서 한강공원 연결보행로를 이용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매일유업 '상하치즈' 자연치즈 시장 이끈다

100% 국산원유… 점유율 '쑥'

자연치즈가 치즈시장에서 나홀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닐슨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치즈 시장 규모는 최근 1년새 소비 경기가 위축되고 영·유아 타깃 시장이 축소되면서 지난해에는 성장이 정체됐다. 연간 치즈시장 규모는 3000억원에 달한다. 이처럼 치즈시장이 전반적으로 위축되는 가운데 자연치즈 시장 규모는 최근 2년간 12% 성장(2015년 3월 기준) 매출은 10억원 가량 증가하며 눈에 띄는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자연치즈 시장의 성장 가능성이 커지자 국내 식품업계는 상대적으로 수입산 자연치즈가 큰 비중(전체 매출의 64%)을 차지하고 있는 국내 치즈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매일유업 상하치즈는 신선한 100% 국산원유를 사용해 한국낙농육우협회가 국내산 우유만을 사용한 유제품에 부여하는 'K-MILK' 인증을 받은 자연치즈 4종(까망베르, 브리, 후레쉬 모짜렐라, 링스)으로 최고의 안전성과 신선한 품질을 앞세우는 차별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 특히 상하치즈 '후레쉬 모짜렐라'는 최근 2년간 연평균 33% 성장하며, 자연치즈 시장 내 가장 큰 규모인 모짜렐라 치즈 시장에서 약 37%의 점유율로 1위를 차지했다.

매일유업 상하치즈의 자연치즈 시리즈. 왼쪽부터 까망베르, 브리, 후레쉬 모짜렐라, 링스. /매일유업

매일유업 상하치즈는 자연치즈 소비 확산을 위해 치즈 식문화 알리기에도 앞장서고 있다. '상하치즈 아카데미'를 열어 자연치즈 요리를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는 레서피를 제공하는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레시피는 상하치즈 홈페이지(www.sanghacheese.co.kr) 에서도 볼 수 있다.

매일유업 상하치즈 관계자는 "단백질, 칼슘 등의 영양이 풍부할 뿐만 아니라 견과류나 토마토 등의 과일과도 잘 어울려 핑거푸드나 샐러드 등 간편한 요리로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했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이대목동병원 '그린 캠페인'… 푸른 지구 조성 동참

이대목동병원(병원장 유경하)은 친환경 진료 환경과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그린 이화 캠페인'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병원 측은 지난 26일 2층 대회의실에서 '그린 이화 캠페인(Green Ewha Campaign)' 선포식을 열었다.

이대목동병원은 직원들이 녹색경영에 대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친환경 인증제품과 우수은 제품 구매를 늘릴 계획이다.

또 잔반 줄이기와 같이 교직원들이 함께 지속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캠페인을 전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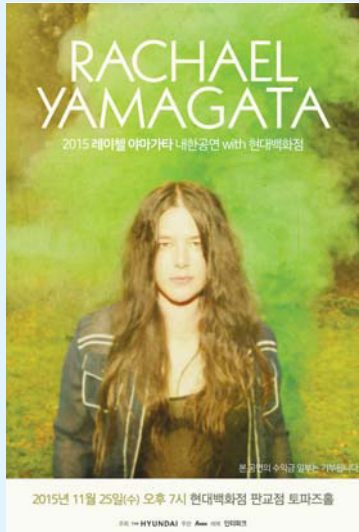
△에너지 온실가스 효율적 관리 △용수 사용량 관리 △절수기기 및 설비 설치 △폐기물 발생량 관리 등도 추진한다. /신원선 기자

아이엘투어, 10박 12일 동남아 골프패키지 159만원

아이엘투어가 따뜻한 동남아 골프여행 상품을 선보인다.

아이엘투어에서 추천하는 몬테레즈 골프장은 쿠알라룸푸르 공항에서 북동쪽으로 약 30분 정도 소요되는 가까운 곳에 있다. 골프장 내에 호수가 많고 숲이 우거진 것이 특징이다. 1일 8만원에 준5성급 호텔(2인1실), 식사, 무제한 그린피, 카트가 포함된다. 또 10박 12일 항공이 포함된 패키지 상품은 159만원으로 동계 장기 투숙을 계획 중인 시니어라면 눈 여겨 볼 만하다.

이외에도 아이엘투어는 중국, 일본, 동남아 각지의 골프장을 직판으로 운영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02-541-4242로 문의하면 된다. /신원선 기자

레이첼 야마가타 내달 한국 온다

20개월만에 단독 내한공연

미국의 싱어송라이터 레이첼 야마가타가 다음달 25일 오후 7시 현대백화점 판교점 토파즈홀에서 내한공연을 개최한다.

레이첼 야마가타는 2003년 데뷔 이후 3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OST와 광고 음악 등을 통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국내에는 2004년 발매된 '해픈스탠스(Happenstance)'의 수록곡 '비 비 유어 러브(Be Be Your Love)'가 한 휴대폰 광고에 쓰이며서 이름을 알렸다.

한국과의 인연도 깊다. 레이첼 야마가타는 지난 6월에 열린 '뮤즈 인 시티 페스티벌'에서 헤드라이너로 한국을 찾은 바 있다. 단독 공연으로는 이번이 1년 8개월여 만이다.

특히 이번 내한공연은 400석 내외의 좌석의 소규모 공연장에서 하게 돼 레이첼 야마가타를 가까이에서 볼 수 있다. 레이첼 야마가타의 신곡을 만날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다.

공연 예매는 28일 오후 2시부터 인터파크에서 진행된다. 자세한 내용은 현대백화점 홈페이지(ehyundai.com)와 공연기획사 액세스 홈페이지(allaccess.c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141-3488) /장병호 기자

"시상식서 동시 후보 되는 게 꿈"

<드라마·영화>

'두번째 스무살' 마친 이상윤

이상윤(34)은 "만족할 정도는 아니어도 후회는 없을 정도로 열심히 했다"고 지금까지의 연기 인생을 돌아봤다. 8년 남짓 배우 생활을 하면서 힘든 순간도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악으로 깡으로" 밀어붙이면서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 노력의 결과일까. "연기가 정말 재미있다"는 그의 말이 흔해빠진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이상윤이 연기의 재미를 느꼈다고 말하는 작품은 바로 지난 17일 종영한 tvN 금토드라마 '두번째 스무살'이다. 잃어버린 스무 살 청춘을 되찾기 위해 15학번 새내기로 대학에 입학한 하노라(최지우)의 이야기를 그린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였다. 이상윤은 하노라가 입학한 우천대학교 연극과의 겸임 교수이자 하노라를 첫사랑으로 간직하고 있는 차현석 역을 맡았다.

이상윤이 '두번째 스무살'에 출연한 것은 그의 대표작인 '내 딸 서영이'로 만난 소현경 작가와의 인연 때문이었다. "작가님의 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어요. 이번 드라마 제안을 받았을 때도 시나리오를 보기 전부터 '오케이'할 마음이 있었죠." 데뷔작 '에어 시티'를 함께 한 선배 배우 최지우와의 재회도 특별한 경험이었다. "그때는 정말 부족함이 많았죠(웃음). 그래서 더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어요."

> '내 딸 서영이' 작가와 재회한 작품
> 진중함 벗고 유쾌한 모습으로 변신
> "판 깔아준 자리서 즐겁게 놀았더니
>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연기 변신"

이상윤은 그동안 드라마에서 착하고 진중한 역할을 주로 연기해왔다. '두번째 스무살'의 차현석도 대학 교수라는 점에서 그 연장선에 놓여 있다. 그러나 작품 속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존 이미지와 사뭇 달랐다. 하노라와의 티격태격 로맨스가 그랬다. 진중함 대신 유쾌함을 내세운 그의 변신은 성공적이었다. 드라마의 높은 시청률이 그 증거다.

이상윤도 이런 연기 변신에서 많은 재미를 느꼈다. "판을 깔아준 자리에서 즐겁게 노는" 재미였다. 연기 초년생 시절에는 대사를 읊으면서 행동까지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두번째 스무살'에서는 자신도 모르게 행동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신나는 경험이었다.

서울대 물리학과 출신인 이상윤은 우연한 기회로 연기의 세계에 발을 내디뎠다. 남들처럼 고된 순간도 많았다. 그럼에도 버틸 수 있었던 것은 포기하지 않는 승부욕, 그리고 도전을 통한 성취감 때문이었다. "오기로 밀어붙이면서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편견을 깼을 때의 성취감으로 또 다른 도전을 할 수 있었고요. 매 순간 집중해서 작품을 하면서 쌓인 것들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워'와 '내 딸 서영이'를 거치면서 연기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됐다. 도전도 즐기게 됐다. '두번째 스무살'은 그렇게 성장해온 이상윤의 또 다른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다.

앞으로의 욕심도 많다. 액션·시트콤·SF 등 해보지 못한 모든 장르가 이상윤의 도전 목록에 포함돼 있다. 드라마 촬영장에서 접한 연극 무대를 보면서는 "언젠가 연극 무대에도 오르고 싶다"는 마음도 생겼다. '두번째 스무살'을 마친 그는 지난 8월 촬영을 마친 영화 '날 보러와요'의 개봉을 앞두고 있다. 이상윤의 꿈은 드라마와 영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것이다.

"2년 전부터 배우로서 갖게 된 목표가 있어요. 한 시상식에서 드라마와 영화로 모두 후보에 오르는 것입니다. 물론 상까지 바라는 건 아니고요(웃음). 허황된 목표일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사진/손진영 기자 son@

'4인조' 돌아온 에프엑스, 한·중 석권

새 앨범 '포 월즈', 발표 직후 1위 대박

4인조로 돌아온 걸그룹 에프엑스가 정규 4집 앨범 '포 월즈(4 Walls)'로 한국과 중국 음원차트 1위를 석권했다.

에프엑스는 27일 자정 새 앨범 '포 월즈'의 전곡 음원을 공개했다. 동명의 타이틀곡은 이날 오전 8시 기준으로 멜론·지니·벅스·네이버뮤직·올레뮤직·소리바다·몽키3 등 7개 음원 차트에서 실시간 1위를 차지했다.

중국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다. 중국 바이두 킹(KING) 차트의 실시간 차트에서 타이틀곡 '포 월즈'가 당당히 1위에 올랐다. '글리터(Glitter)' 'X' '캐시 미 아웃(Cash Me Out)' 등 수록곡들도 20위 안에 랭크됐다.

에프엑스의 이번 컴백은 멤버 설리의 탈퇴 이후 크리스탈·빅토리아·루나·엠버의 4인조로 처음 선보이는 앨범으로 화제를 모았다. 신곡 '포 월즈'는 몽환적이고 세련된 분위기가 돋보이는 딥하우스 장르의 노래다. 빼곡하게 돋아나는 꽃잎처럼 갑작스럽게 피어난 사랑 때문에 사방이 벽인 공간 속에 갇힌 것처럼 느껴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담았다.

한편 에프엑스는 29일 엠넷 '엠카운트다운'을 시작으로 30일 KBS2 '뮤직뱅크', 31일 MBC '쇼! 음악중심' 등에 출연하며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앨범은 27일 오프라인에서도 발매됐다. /장병호 기자

E채널 X 드라마큐브 **동시방송**

당신의 심장은 지금 우리들 만큼
뜨겁게 뛰어본 적이 있는가

로드트립 공감 드라마

라이더스
내일을 잡아라

11월 8일 일요일 밤 11시 첫방송

김동욱 | 이청아 | 최여진 | 윤종훈 | 최민 길해연 장호일 정이랑 이희진 미람 조병규 | 특별출연 | 권해효 홍석천 김강현 이동훈 | 극본 | 박상희 | 연출 | 최도훈

t.cast | E channel SCREEN DRAMAcube FashionN CINEf CHAmp FOX FOX life FX

수묵추상의 거장 '서세옥' 현대미술관서 기증작품전

내년 3월 6일까지 100점 전시

'두사람' 2004, 닥종이에 수묵, 39.8×45cm. /국립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은 기증작품 특별전 '서세옥'을 27일부터 내년 3월 6일까지 서울관에서 개최한다.

산정 서세옥(1929~)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묵추상 분야의 독보적 거장이다.

이번 전시는 작가가 2014년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한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시기별 대표작 100점을 소개하는 기증 작품 특별전이다.

'서세옥'전은 1990년대를 기준으로 1, 2부로 구성됐다. 1부 전시는 1960년대 묵림회를 통해 추구했던 수묵추상 작품들과 1970년대 이후부터 1990년대까지의 생동감 넘치는 묵선과 여백의 공명만으로 인간 형상 속 기운생동을 표현했던 '사람들' 시리즈 약 50점이 전시된다. 2부 전시는 1990년대부터 최근 작품으로 구성된다. 전시와 아울러 상영되는 다큐멘터리 영상은 전시되는 작품들과 더불어 기존의 굴레로부터 탈출해 작가가 찾고자 했던 우리 '정체성'의 한 단면을 이해할 수 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http://www.mmc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염지은 기자

이산가족의 아픔, 뮤지컬도 공감

창작뮤지컬 '서울 1983'

오는 30일부터 세종문화회관
'이산가족찾기' 방송 모티브로
생이별한 부부의 사랑 담아내

6·25 전쟁으로 인한 분단의 고통, 이산의 아픔을 안고 광복 70년, 분단 70년의 고단한 삶을 살아온 우리네 이야기가 창작뮤지컬로 그려졌다.

서울시뮤지컬단(단장 김덕남)은 30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서울 1983'을 선보인다.

김태수의 희곡 '단장의 미아리 고개'를 원작으로 송시현 작곡가와 김덕남 연출이 참여하며 배우 나문희와 박인환이 출연한다.

이번 공연은 1983년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던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을 모티브로 시작됐다. 당시 큰 화제를 모았던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를 포함해 '상록수', '꽃마차', '울릉도 트위스트', '라밤바', '아침이슬' 등 1970~1990년대를 대표했던 국민가요와 창작뮤지컬 넘버들이 송시현 작곡가에 의해 재탄생됐다.

'서울 1983' 포스터. /세종문화회관

기성곡 11곡, 창작곡 15곡이 포함된 총 26곡의 뮤지컬 넘버가 대극장 무대를 가득 채우는 웅장함과 지난 추억을 되새기는 구성짐을 관객들에게 선사할 예정이다.

남편과 이별 후 홀로 네 명의 자식을 키우는 여주인공 돌산댁 역은 나문희가 맡았다. 전쟁포로로 북한으로 끌려가며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던 양백천 역은 박인환이 맡아 전쟁으로 인한 이별의 아픔과 부부의 애틋한 사랑을 관객에게 전한다.

중장년층이 즐기고 향유할 수 있는 웰메이드 시니어 뮤지컬로 시장의 활로가 기대되는 작품이다.

작품의 배경이 된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에 등재돼 더욱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방송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에 걸쳐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세계 최장 생방송이다.

무려 10만952건이 신청됐고 5만3536건의 이산가족 사연이 방송에 소개됐으며 총 1만189건의 상봉이 이뤄졌다. 이산의 아픔과 만남의 기적들이 방송되면서 전국을 울음바다로 만들기도 했다.

관람료는 3만~11만원이며 티켓은 세종문화회관 인포샵(02-399-1000)과 인터파크 티켓(1544-1555)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65세 이상 경로대상자는 50% 할인(본인에 한함)된다. 문의 (02) 399-1772~3.

/염지은 기자 senajy7@metroseoul.co.kr

TV 하이라이트

실패하는 납치 계획

◆ KBS2 '장사의 신-객주 2015' 오후 10시

길소개(유오성)와 조성준(김명수)은 김학준(김학철)의 회갑연에 양반으로 위장해 들어가 그를 납치하려고 계획을 세운다. 그러나 천소례(박은혜)의 방해로 계획은 실패하고 조성준은 관아의 추쇄를 당하게 된다. 그 틈을 타 천소례는 부상입은 김학준에게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아버지를 죽인 사람을 추궁한다. /정리=장병호 기자 solan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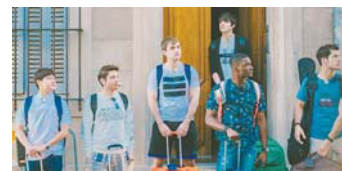
◆ MBC '그녀는 예뻤다' 오후 10시

신혁(최시원)은 다시 모스트 편집팀으로 들어온다. 혜진(황정음)에게 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한다. 한편 성준(박서준)은 판매부수 1위 탈환을 위해 고군분투한다.

◆ tvN '수요미식회' 오후 9시40분

밥도둑으로 유명한 꽃게를 살펴본다. 걸그룹 에프엑스 멤버 빅토리아가 게스트로 출연해 꽃게의 매력을 함께 살펴본다. 듣도 보도 못한 이색 꽃게 요리들도 소개된다.

◆ JTBC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오후 9시30분

알베·위안·기욤은 프랑스 와인의 자존심인 부르고뉴 명품 와인을 맛본다. 친구들에게 선물을 줄 와인을 만들기 위해 포도 따기에 직접 나선다.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8일(수)

KBS1	KBS2	MBC	SBS	JTBC	tvN	OCN	채널CGV
05:00 KBS 뉴스 05:10 내 고향 스페셜 06:00 KBS 뉴스광장 07:50 인간극장 08:25 아침마당 09:30 KBS 뉴스 10: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0:55 별별가족 11:00 KBS네트워크특선 아름다운 충북 아름다운 사람들 11:55 안녕 우리말	06:00 2TV 아침 1부 07:00 2TV 아침 2부 08:00 KBS 아침 뉴스타임 09:00 TV소설 별이 되어 빛나리 09:40 여유만만 10:40 지구촌 뉴스 11: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재)	05:00 MBC 뉴스 05:10 그린실버 고향이 좋다 스페셜 06:00 MBC 뉴스투데이 1부 06:25 MBC 뉴스투데이 2부 07:50 이브의 사랑 08:30 생방송 오늘 아침 09:30 MBC 생활뉴스 09:45 기분 좋은 날 11:00 내 딸, 금사월 (재)	05:00 SBS 5 뉴스 05:10 굿모닝 510-생활의 발견 06:00 모닝와이드 (1~3부) 08:30 어머님은 내 며느리 09:10 좋은아침 10:00 SBS 뉴스 10:30 SBS 생활경제 11:30 웃찾사 스페셜	06:00 힐링의 품격 스페셜 07:00 이야기 보따리 (재) 07:30 JTBC NEWS 아침 & 09:00 냉장고를 부탁해 (재) 10:20 비정상회담 (재) 11:45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재)	05:00 집밥 백선생 (재) 06:00 SNL 코리아 꿀잼 에디션 (재) 06:20 응답하라 1997 (재) 09:50 집밥 백선생 (재) 11:10 풍선껌 (재)	06:20 장화홍련 08:30 크리미널 마인드 시즌6	06:00 구르믈 버서난 달처럼 08:00 음치클리닉 10:40 몬스터
12:00 KBS 뉴스 12 13:00 역사저널 그날 (재) 13:50 별별가족 13: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재) 14:00 녹화중계 광복70년 국가미래전략 종합학술대회 15:10 네트워크특선 원양전쟁 최전선을 가다 16:10 걸어서 세계속으로 (재) 17:00 KBS 뉴스 5 17:20 시사진단	13:00 다큐멘터리 3일 (재) 14:00 KBS 뉴스타임 14:10 세상의 모든 다큐 (재) 15:05 후토스-잃어버린 숲 (재) 15:30 자동공부책상 위키 (재) 16:00 TV 유치원 16:30 이욱정 PD의 요리인류 키친 (재) 16:35 동물의 세계 17:00 비타민	12:00 MBC 정오뉴스 12:20 그녀는 예뻤다 (재) 13:30 키즈 사이언스 5 (재) 14:30 똑?똑! 키즈스쿨 15:00 MBC 뉴스 15:10 마법천자문 15:40 경제매거진 M 스페셜 16:25 딱 너 같은 딸 (재) 17:00 MBC 이브닝 뉴스	12:00 SBS 12뉴스 12:50 오! 마이 베이비 (재) 14:00 영재발굴단 (재) 15:00 SBS 뉴스 15:10 SBS 이슈 인사이드 16:00 내 마음의 크레파스 스페셜 16:30 꾸러기 탐구생활 17:00 SBS 뉴스 퍼레이드 17:30 바이클론즈	13:05 투유 프로젝트-슈가맨 (재) 14:35 JTBC 뉴스 현장 15:50 4시 사건 반장 17:10 5시 정치부 회의	12:30 풍선껌 (재) 13:50 삼시세끼 어촌편 시즌2 (재) 17:30 집밥 백선생 (재)	12:30 가문의 영광 5:가문의 귀환 14:45 오드 토머스 16:50 관상	13: 00 시드니 화이트 15:10 베를린 17:30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18:00 6시 내고향 18: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19:00 KBS 뉴스 7 19:30 사람과 사람들 20:25 가족을 지켜라 21:00 KBS 뉴스 9 22:00 생로병사의 비밀 23:00 KBS 뉴스라인 23:40 문화빅뱅 더 콘서트	18:00 글로벌 24 18:30 2TV 저녁 생생정보 1 19:50 다 잘될 거야 20:30 2TV 저녁 생생정보 2 20:55 글로벌 남편백서 내편, 남편 22:00 장사의 신 – 객주 2015 23:10 추적 60분 24:10 스포츠 하이라이트 24:35 세상의 모든 다큐	18:10 생방송 오늘 저녁 19:15 위대한 조강지처 19:55 MBC 뉴스데스크 20:55 딱 너 같은 딸 21:30 리얼스토리 눈 22:00 그녀는 예뻤다 23:10 라디오스타 24:30 MBC 뉴스 24 24:50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18:00 생방송 투데이 19:20 돌아온 황금복 20:00 SBS 8 뉴스 20:55 영재발굴단 22:00 마을-아치아라의 비밀 23:15 한밤의 TV연예 24:35 나이트라인	18:20 비정상회담 (재) 19:40 연금복권 520 19:55 JTBC 뉴스룸 21:30 내 친구의 집은 어디인가 22:50 유자식상팔자 24: 15 송곳 (재)	18:50 야구해도 괜찮아 20:20 비밀독서단 (재) 21:40 수요미식회 23:00 할매네 로봇 24:20 집밥 백선생 (재)	17:40 투건스 22:00 아이 로봇 24:20 신세계	19:40 백 투 더 퓨쳐 22:00 폴리스 스토리 2014 24:10 살인의 추억

30년의 우승 가뭄, 단비는 어디에 내릴까

월드시리즈 개막

MLB 캔자스시티 vs 메츠 우승 위한 치열한 격전 예고

미국프로야구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뉴욕 메츠의 월드시리즈 1차전이 28일 오전 9시(한국시간) 열린다. 사진은 아메리칸리그 내셔널리그 우승팀 메츠 선수들. /AP 연합뉴스

미국프로야구 아메리칸리그 우승팀인 캔자스시티 로열스와 내셔널리그 우승팀 뉴욕 메츠가 28일(이하 한국시간)부터 열리는 월드시리즈(7전 4승제)에서 맞붙는다. 두 팀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리는 1차전을 시작으로 메이저리그 우승을 향한 경쟁을 펼친다.

월드시리즈 1~2차전은 캔자스시티의 홈인 카우프만 스타디움에서 열린다. 이어 하루 휴식 후 메츠의 홈인 뉴욕 시티 필드에서 3~5차전을 벌인다. 여기에서 승부가 가려지지 않으면 두 팀은 다시 카우프만 스타디움으로 이동해 6~7차전을 치른다.

특히 캔자스시티와 메츠는 30년 동안 이어진 우승 가뭄을 끝내기 위해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격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캔자스시티는 1985년 창단 첫 우승 이후 두 번째 월드시리즈 우승을 노린다. 메츠도 1986년 이후 처음으로 메이저리그 최종 승자가 되기를 원한다.

두 팀이 월드시리즈에 오르는 데에는 트레이드의 효과가 컸다. 캔자스시티는 트레이드 시장에서 주가가 높았던 내야 유틸리티맨 벤 조브리스트와 우완 투수 조니 쿠에토를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다. 쿠에토는 포스트시즌 들어 부진한 모습을 보였지만 조브리스트는 기대 이상이었다.

또한 알렉스 고든까지 부상을 털고 복귀한 캔자스시티 타선은 정규시즌 마지막 43경기와 이번 포스트시즌에서 경기당 5.1점을 뽑아내는 막강 공격력을 뽐내고 있다.

메츠는 트레이드로 얻은 외야수 요에니스 세스페데스가 '신의 한 수'가 됐다. 데이비드 라이트, 트래비스 다노도 부상자 명단에서 돌아왔다. 유망주 마이클 콘포토까지 가세하면서 메츠는 상승세를 타고 3위까지 순위가 올랐다. 세스페데스가 합류한 8월 2일 이후로 이어진 정규시즌 68경기와 디비전시리즈, 챔피언십시리즈에서 경기당 5.3점을 기록해 캔자스시티를 능가하는 화력을 뽐내고 있다.

팽팽한 승부가 이어진다면 경기 막판 유리한 팀은 캔자스시티가 될 공산이 커 보인다. 하지만 결과를 섣불리 예측하기는 어렵다. 메츠에는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6경기 연속 홈런을 달성하며 신기록을 갈아치운 괴력의 대니얼 머피가 있기 때문이다. 머피가 '에이스 킬러'의 면모를 또 한 번 발휘한다면 승부의 향방은 쉽게 점치기 어렵다. 메츠가 챔피언십시리즈를 조기에 끝내 세스페데스가 왼쪽 어깨 통증을 치료할 시간을 벌었다는 점도 소득이다.

/장병호 기자 solanin@metroseoul.co.kr

박인비, '세계 랭킹 1위' 재탈환 나선다

LPGA 블루베이

되찾은 퍼트 감각으로 리디아 고와 정면대결

리디아 고(18)에게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준 박인비(27·KB금융그룹·사진)가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블루베이 대회(총상금 200만 달러)로 정상 탈환에 나선다.

박인비는 지난주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KB금융 스타 챔피언십에 출전해 같은 기간에 열린 LPGA 투어 푸본 타이완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았다. 이 경기에서 리디아 고가 우승해 세계랭킹 1위 자리를 내줬다. 리디아 고는 시즌 5승을 기록하며 세계랭킹과 시즌 상금, 시즌 평균타수, 다승 부문에서 1위 자리에 올랐다.

하지만 박인비도 국내 대회를 통해 얻은 것이 있다. 올 시즌 중반 이후 흔들렸던 퍼트 감각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다.

지난주 국내 대회를 공동 2위로 마친 박인비는 "이 대회에서 3퍼트를 두 차례밖에 하지 않았다. 퍼트 감각을 되찾았다"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오는 29일부터 나흘 동안 중국 하이난섬 지안 레이크 블루베이 골프코스(파72)에서 열리는 이번 LPGA 대회에는 리디아 고도 출전하다. 박인비와 1인자 경쟁이 관전 포인트다.

지난해 처음 열린 이 대회에서 리디아 고는 공동 7위를 차지했다. 박인비는 당시 경기에 출전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대회마다 1위를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박인비는 태연한 모습을 보였다. 박인비는 "여자피 시즌이 끝날 때까지 리디아 고와 맞붙어야 한다"며 "이제 2위로 밀려났으니 따라가는 재미로 시즌을 마무리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번 대회에는 신인 포인트 1위를 달리는 김세영(22·미래에셋), 2위 김효주(20·롯데), 세계랭킹 5위 유소연(25·하나금융그룹) 등도 출전한다. /장병호 기자

강정호, 선수들이 뽑은 NL '신인왕' 3위

<내셔널리그>

미국 프로야구 피츠버그 파이리츠의 강정호(28·사진)가 선수들이 뽑은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 3위에 올랐다.

강정호는 27일(한국시간) 미국 스포팅뉴스가 167명의 내셔널리그 선수를 상대로 진행한 '올해 내셔널리그 최고의 신인' 투표에서 5표로 3위를 차지했다. 1위는 127표를 받은 시카고 컵스의 내야수 크리스 브라이언트에게 돌아갔다. 2위는 22표를 받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내야수 맷 더피다.

강정호는 올해 메이저리그 무대를 처음 밟았다. 올 시즌 126경기에 출전해 타율 0.287, 15홈런, 58타점, 60득점을 기록했다. 앞서 내셔널리그 7월의 신인으로도 뽑히며 존재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난달 18일 시카고 컵스와의 홈경기에서 유격수로 병살 플레이를 펼치다 주자의 과격한 슬라이딩에 왼 무릎을 부상해 조기에 시즌을 마감했다.

1위를 차지한 브라이언트는 올 시즌 151경기에 출전해 타율 0.275, 26홈런, 99타점의 성적을 기록했다. 더피는 149경기에 나와 타율 0.295, 12홈런, 77타점을 올렸다.

공동 4위에는 로스앤젤레스 다저스의 외야수 작 피더슨, 시카고 컵스의 외야수 카일 슈와버가 이름을 올렸다. 각각 3표를 얻었다.

스포팅뉴스는 1946년부터 올해의 신인을 자체 선정하고 있다. 메이저리그 공식 올해의 신인은 기자단 투표로 선정된다. /장병호 기자

'장신가드' 윤예빈, 삼성생명 유니폼 입는다

<온양여고>

여자프로농구 신인 드래프트

윤예빈(18·온양여고·사진)이 여자프로농구(WKBL) 신인 드래프트에서 전체 1순위로 삼성생명 유니폼을 입게 됐다.

삼성생명은 27일 서울 청담동 호텔리베라에서 열린 2016 WKBL 신인 선수 선발회에서 윤예빈을 전체 1순위로 지명했다.

180cm의 장신 가드인 윤예빈은 올해 5경기에서 평균 득점 22.2, 리바운드 16.4, 어시스트 2.8개를 기록했다. 무릎 부상으로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하고 국제농구연맹(FIBA) 19세 이하(U-19) 대표팀에도

선발되지 못했지만 득점력이 뛰어나고 큰 키에 볼 핸들링이 좋다는 평가를 받는다.

삼성생명 임근배 감독은 "생각도 못했는데 1순위가 돼서 기쁘다"며 "가드 보강이 절실했다. 윤예빈이 재활 중이지만 장래성을 보고 뽑았다"고 말했다.

/장병호 기자

조제 모리뉴 첼시 감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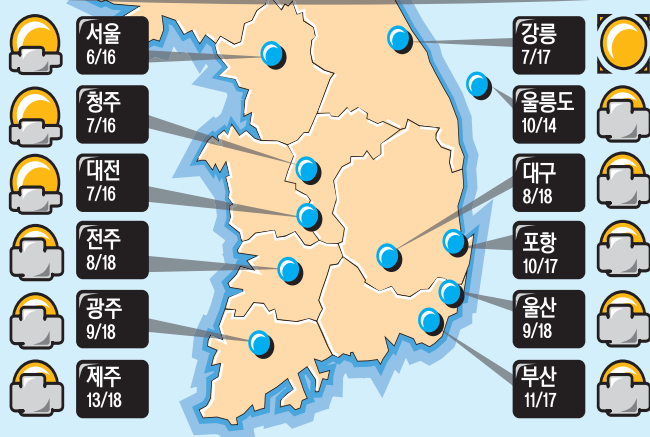
심판에 항의하다 또 징계

잉글랜드 프로축구 첼시의 조제 모리뉴 감독이 심판에게 항의해 잉글랜드 축구협회(FA)로부터 또 다시 징계를 받게 됐다.

FA는 26일(현지시간) "지난 24일 웨스트햄과의 경기 하프타임에 라커룸 근처에서 심판에게 부적절한 언어를 구사하고 행동을 한 모리뉴 감독에게 징계를 내릴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모리뉴 감독은 이달 초에도 사우샘프턴과 경기에서 패한 뒤 판정에 불만을 나타내 1경기 출전 정지와 벌금 5만 파운드(약 8800만원)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장병호 기자

자외선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www.pai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5			1		3			
		3	5			6		
1	4					3		
	7	5	8					
	9		6		2		4	
					5	7	1	
		4					7	6
		9			1	5		
			9		4			8

	4							1
9					2		7	4
7		3	8		1			
					3	4		2
	6						3	
8		7	2					
			3		7	6		8
6	5		9					3
3							1	

스도쿠 정답

5	6	7	1	8	3	4	9	2
9	2	3	5	4	7	6	8	1
1	4	8	2	9	6	3	5	7
4	7	5	8	1	9	2	6	3
3	9	1	6	7	2	8	4	5
6	8	2	4	3	5	7	1	9
2	1	4	3	5	8	9	7	6
8	3	9	7	6	1	5	2	4
7	5	6	9	2	4	1	3	8

5	4	6	7	3	9	8	2	1
9	8	1	5	6	2	3	7	4
7	2	3	8	4	1	5	9	6
1	9	5	6	7	3	4	8	2
2	6	4	1	8	5	9	3	7
8	3	7	2	9	4	1	6	5
4	1	9	3	2	7	6	5	8
6	5	2	9	1	8	7	4	3
3	7	8	4	5	6	2	1	9

문제 제공= 보누스
'멘사 스도쿠 프리미어'
(피터 고든·프랭크 롱고 지음)

생활 영어

Can you give me some pepper?

Young : Wow! This is my favorite food, seaweed soup!

Wife : I'm glad you like it.

Young : Can you give me some pepper?

Wife : Sure. Here you are.

후추 좀 주실래요?

영 : 와! 이건 내가 가장 좋아하는 미역국이잖아?

아내 : 좋아하신다니 기쁘네요.

영 : 후추 좀 주실래요?

아내 : 물론이죠. 여기 있어요.

Quiz

Q. What can be inferred from the dialogue?
(A) The woman woke up late.
(B) The man doesn't like seaweed soup.
(C) The woman prepared seaweed soup for breakfast.
(D) The man is disappointed with the taste of the soup.

문법Point

Can you give me + 명사구
제게 ~를 주시겠어요?
이번 패턴은 상대방에게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 쓰이는 표현입니다. 비교적 공손한 표현이므로 폭넓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달라고 요구할 때도 그냥 'Give me.'라고 말하기 보다는 'Can you~'라는 표현을 이용해서 말하는 습관을 들여봅시다.

퀴즈해설

Q. 들려준 내용에서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A) 여자는 늦게 일어났다.
(B) 남자는 미역국을 좋아 하지 않는다.
(C) 여자는 아침식사로 미역국을 준비했다.
(D) 남자는 그 국 맛에 실망했다.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saju4000.com

직장 대인관계가 틀어져 고민입니다
경조사 챙기고 취미 공유 등 노력하세요

ysb3307 남자 74년 4월 8일 음력 10시

Q 매일 아침 '메트로신문'을 펴보는 이유가 선생님의 사주를 보기 위해서인 독자입니다. 제 삶이 답답하다 보니 선생님이 풀어주시는 다른 독자의 사주를 보며 많은 생각을 하다가 직접 신청 드립니다.
현재의 직장에서 견디기가 힘듭니다. 회사는 작은 데 파벌과 정치싸움이 매우 심한 편입니다. 4년 전에 본의 아니게 사내 정치에 휩쓸린 후 계속 상사가 괴롭히는 데다 이제는 거의 투명인간 신세입니다. 주위에 도움을 줄 사람은 없고 적들만 가득합니다.
이직을 위해 노력은 하는데 제가 어떻게 향후 진로를 잡고 대처해야 할지요. 선생님의 소중한 상담을 간절히 바라며 글을 마칩니다.

A 직장 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 개인적인 성격적 결함이 있거나 회사의 특이성 때문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귀하가 회사를 박차고 나오기 전까지는 애초에 그 조직 안으로 들어가지 않은 것이 원인입니다.
귀하는 '물속에 잠긴 금기(金氣)'로 외화내빈 하고 겉으로는 견고한 듯 하나 내면은 차가운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시비를 가리는 예리한 비판력을 지녔으며 의리와 청백(淸白)한 면은 높이 살만 하지만 생일지(生日支)에 상관(傷官:직업을 상하게 함)은 하극상(下剋上)의 기질을 내포하고 조직보다는 자신의 주장만 해온 경향이 있습니다.
속담에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라'고 하듯이 절을 옮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현재는 이직운도 안 좋으며 사퇴를 하면 백수가 되는 운입니다. 귀하가 조직 속으로 들어가야 하므로 회사 동료나 상사의 개인 취미와 기호 파악을 빨리하여 늦었지만 같이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조사에 비용을 투자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자신을 왕따 시키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할 때 인정하는 것도 같은 색깔이라는 것을 나타내주십시오. 그러한 행동이 비굴한 것은 아닙니다. 빙빙 돌지만 말고 회사의 영업증진에 관계된 프로젝트에 공헌을 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 조직에 귀하의 학연 지연 등 공통점이 있는 사람을 찾아 아군으로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점심시간에 동료들이 좋아하고 유행하는 유모어에 대해 공부를 해서 써먹도록 해보십시오.
덧붙여서 '내가 그만두면 저 상대를 어떤 방법으로 다치게 해야지' 하는 힘든 생각은 금물이며 회사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퇴근 후 자신분야의 공부를 열심히 하든 운동을 열심히 하든 게임을 열심히 하든 뭐든지 하세요.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 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10월 28일 (음 9월 16일) 힐링운세(www.healingunse.com) 060-800-8877

48년생 가세는 확장되고 만복이 찾아옵니다. 60년생 남의 이야기도 귀담아 들어보세요. 72년생 당신을 좋아하는 무리가 한둘이 아니니 마음이 좋습니다. 84년생 시기가 좋아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49년생 작은 일이라도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61년생 언제까지 지난 일만 돌아볼 생각이십니까? 73년생 동남방이 길방입니다. 85년생 재물은 크게 들어오지 못합니다.

50년생 기다림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62년생 너무 많은 조심성은 해가 됩니다. 74년생 오랜 친구가 배신합니다. 86년생 육체적인 건강보다 정신적인 건강이 더욱 중요합니다.

51년생 돈 때문에 망신수 있으니 근신하세요. 63년생 건강은 건강할때 관리해야 할것입니다. 75년생 과음은 금물입니다. 87년생 뜻이 굳고 변함이 없다면 능히 고난을 극복해 나갈 것입니다.

52년생 건강을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64년생 무난한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76년생 동쪽에서 귀한 손님이 옵니다. 88년생 미루고 있던 일은 즉시 추진하세요.

53년생 교통수단을 조심하세요. 65년생 건강이 많이 악화됩니다. 77년생 기회란 늘 오는 것이 아닙니다. 89년생 귀하의 카리스마와 지도력이 때를 만났으니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54년생 집밖에서 하는 일이 길합니다. 66년생 옛 친구들을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78년생 기대도 안 했던 재물이 들어오게 될것입니다. 90년생 시험에 합격의 영광을 받게 됩니다.

55년생 추진중인 일은 대성과를 얻을것입니다. 67년생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79년생 서쪽에 귀하를 도울 귀인이 있습니다. 91년생 친구와 함께 여행길에 나서세요.

56년생 호랑이가 날개를 달았으므로 막을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68년생 마음을 비우세요. 80년생 늦바람을 조심하세요. 92년생 이성문제로 고민을 하게 됩니다.

57년생 지난 실수는 후회해도 소용 없습니다. 69년생 크게 손해보는 일이 있을수 있습니다. 81년생 배신수가 보입니다. 93년생 양다리는 절대로 안됩니다.

58년생 남쪽이 길방입니다. 70년생 이성과의 데이트가 있습니다. 82년생 백만대군이 당신을 지원하니 만사형통입니다. 94년생 늦은 귀가는 금물입니다.

59년생 먼 여행보다는 가까운 여행이 길합니다. 71년생 마침내 크게 형통할 운입니다. 83년생 주변인들이 모두 돕습니다. 95년생 막혔던 자금줄이 열립니다.

조선산업 위기극복, 이제부터 시작하자

윤휘종의 잠시 쉼표

지난 2011년 '해가 지지 않는 조선·해양 강국'이란 주제로 서아프리카의 앙골라와 중동 아부다비의 해상유전을 취재한 적이 있었다. 당시 23시간에 걸쳐 비행기로 앙골라에 가서, 다시 400㎞를 자동차로 달려가 현지 해양플랜트 전진기지인 '파이날 야드'에서 근무하는 대우조선해양 작업자들을 만날 수 있었다.

아부다비에서는 조그마한 소형 선박에 몸을 싣고 7시간을 이동해 중동의 바다 한 가운데 있는 해상유정 '움샤이프'에 올라가 해양플랜트 유지보수를 담당하던 현대중공업 직원을 만날 수 있었다. 지금도 한 여름밤 노을이 질 때면 당시 후텁지근했던 바다 위를 배경으로 노란 불꽃을 뿜던 현대중공업의 해양플랜트 모습이 떠오르곤 한다.

한 때 반도체와 함께 대한민국을 대표했던 조선산업이 지금은 애물단지 취급을 받고 있다. 국내 대표기업인 현대중공업,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등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적자를 감안하면 올 하반기까지 약 10조원의 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조선업체들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선박 수주량도 불안하다. 영국의 조선·해양분야 시장조사업체 클락슨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8월 국내 조선업체들이 수주한 신규 선박량은 15만CGT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일본은 43만CGT, 중국은 41만CGT로 우리나라를 크게 앞섰다.

조선산업은 1990년대부터 반도체와 함께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수출 효자산업이었다. 지난해에도 399억달러의 수출을 기록해 우리나라가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하는데 기여했다. 이랬던 대한민국의 조선산업이 어느새 몰락한 것이다.

반면 중국은 우리나라를 따라잡겠다는 목표 아래 정부 차원에서 지난 2013년부터 51개 기업만 선별해 금융지원을 하고 있다. 경쟁력이 없는 조선소들은 도태시키겠다는 것이다. 대한민국에 '조선강국'의 지위를 빼앗긴 일본은 기업 인수합병(M&A)을 통해 규모를 키우고 있다. 일본정부 차원에서는 선박가격의 80%까지 연이율 1%대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정부 차원의 지원은 없고 경영진은 노동조합 눈치보기에 급급했다. 후발주자들의 추격을 따돌릴 기술개발 투자보다는 주주의 배당에 더 신경을 썼다. 업의 본질인 경쟁력 향상을 등한시한 결과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우조선의 경영정상화 여부가 핫이슈가 되고 있다. 대우조선 노조는 26일 채권단이 회사 자금지원의 전제조건으로 요구한 임금동결과 무파업을 수용하겠다고 전격 결정했다.

채권단은 유상증자, 출자전환, 신규자금 지원 등 총 4조3000억원에 이르는 대우조선 정상화 지원방안을 이르면 29일 발표할 예정이다.

대우조선 정상화 움직임을 계기로 조선산업이 과거의 부실을 떨어버리고 다시 한번 한국의 주력산업으로 발돋움하기를 기대해본다.

社說

카카오의 창작지원에 대한 기대

인터넷포털 카카오가 주목을 끄는 사업계획을 내놓았다. '다음 뉴스펀딩'을 '스토리펀딩'으로 개편하고 다양한 분야의 창작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스토리펀딩은 뉴스 콘텐츠 뿐만 아니라 책, 음악, 영화, 신기술 등 새로운 창작물을 만드는 사람들도 펀딩을 받을 수 있도록 참여폭을 넓힌다. 이에 따라 '나만의 창작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스토리펀딩에 문을 두드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날 스토리 가뭄에 허덕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카카오의 이같은 계획은 단비 같은 소식이다. 각종 하드웨어산업이 발전하고 인터넷까지 활성화되면서 온갖 공산품과 뉴스는 쏟아지는 반면 깊이 있고 진실된 창작물은 별로 나오지 않는다. 과거에는 문학이 그런 역할을 해왔으나 요즘은 문학조차 시민들과 멀어지고 있다. 논픽션 분야에서도 창작의 샘이 갈수록 말라가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전통있는 문학잡지들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아예 문을 닫기도 한다. 그러니 우리에게 노벨문학상 같은 것은 언감생심이다. 박근혜정부가 '창조경제'를 부르짖어왔지만 메아리가 별로 없는 것도 이 때문일 것이다.

이렇듯 고갈되어 가는 스토리와 창작의욕을 되살리고 고무하는 것이 인터넷 포털의 중요한 역할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창작의 촉매제 역할을 예전에는 신문과 잡지가 해왔지만, 지금은 포털이 상당부분 떠맡게 됐고 또 떠맡을 수밖에 없다.

오늘날 인터넷 포털은 지식 콘텐츠의 집산지나 다름없다. 그것은 인류의 문화사에서 전혀 새로운 현상이다. 문자와 종이, 인쇄술이 발명됨으로써 인류의 문화적 창의력이 분출됐듯이, 이제 인터넷포털이 그같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므로 카카오의 계획에 대해 새삼 기대를 걸어보고자 한다. 그런 과정에서 카카오의 새로운 수익모델도 창출될 수 있을 것이다. 대신 카카오는 대리운전처럼 본래의 책무에 어울리지 않는 사업에 대한 진출은 재고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유례없는 '타임머신' 개발

기자 수첩

이 정 필 <파이낸스&마켓부>

또 양극 분열 프레임이다. 놀라운 창조경제의 혁신을 보여준 정부가 이번에는 유례없는 '타임머신' 개발에 도전한다.

특권층에 집중된 현재와 미래를 강화하는 것에는 만족할 수 없었던 모양이다. 과거로 날아가 있었던 사실까지 조율해야 완전체를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한 게 분명하다.

비로소 기득권이 건국하고 계승해 발전시킨 역사가 매끄럽게 이어지는, 그들만의 대한민국이 완성되는 것이다.

여기서 국민은 배경이다. 그들이 주인인 게 당연하다. 청년이나 노년이나 삶이 힘들다고 외치는데 눈을 감고 귀를 막은 현 정권은 파죽지세다.

학생들도 학자들도 이 길은 아니라고 규탄하는데 철권통치에 회귀한 정권은 요지부동 마이웨이다.

요즘 같은 시대에 '친일'과 '독재'가 어디 있냐는 논리다. 그러면서 요즘 같은 시대에 '종북'과 '좌파'는 남겨뒀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교과서 국정화 과정에서 역사 왜곡이나 미화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미 대선 공약을 뒤집고 새로운 행보를 펼친 전례가 수차례다. 여당 한 인사의 언행 역시 정부에 대한 신빙성을 떨어뜨린다. 부친의 친일 행적에 대한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어느새 묵인이나 부인을 넘어 비밀로 독립자금을 댄 애국지사로까지 변모시켰다.

근현대사를 경험한 국민이 서슬퍼렇게 지켜보고 있는 지금도 이같은 작업을 치밀하게 준행하고 있는 이들이다.

과연 과거를 모르는 아이들에게 어떤 교육을 선사할지는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두 달 뒤면 2016년이다.

부친의 과오를 지우고 공과를 포장하려는 효녀와 효자로 인해, 국민이 아닌 특권층을 주인으로 만드는 데 골몰하는 사람들로 인해 '2020 올 뉴 새마을운동'을 맛보게 될지 모른다.

사계절 아름다운 우리나라. 축복받은 대한민국이 도대체 어디까지 늦가을 썩은 낙엽처럼 나락으로 떨어질까.

온열·온수매트, 비교하고 구매하세요

소비자 119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난방용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수요가 증가하면서 대형마트와 온라인몰에서는 침구, 에어캡, 전기요 등 방한용품 특가전이 한창이다. 또 홈쇼핑은 온열매트와 온수매트의 편성을 늘리고 있다.

온열매트와 온수매트는 대표적인 바닥난방 제품이다. 같은 매트지만 온열매트와 온수매트는 구조부터 관리법까지 차이가 있다.

온열매트는 매트 내부에 열선을 넣어 난방을 하는 방식이라면 온수매트는 온돌구조와 같이 물을 데워 온도를 올린다. 온열매트의 경우 열선때문에 전자파 발생에 대한 우려가 많았지만 최근에는 전자파 차단효과를 높인 제품도 늘고 있다. 온열매트는 일월, 솔고바이오메디칼, 보국전자 등 전기매트 전문기업에서 주로 생산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에이스침대에서도 관련시장에 진출했다. 온수매트는 다양한 중소기업과 귀뚜라미보일러, 경동나비엔 등 보일러 업계가 경쟁하는 시장이다.

온열매트와 온수매트 모두 바닥과 침대에서 두루 사용할 수 있는 점은 공통점이다. 그러나 관리법은 온열매트가 좀 더 편리하다.

온수매트는 이용하는 동안 물을 일정기간마다 보충해야하고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매트 내부의 물을 모두 뺀 후 보관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온열매트는 어답터를 뺀 후 접어서 보관이 가능하다. 화재 안전성은 온수매트가 더 높다. 열선이 직접 닿는 온열매트는 과열됐을 때 매트를 태우기 쉽지만 온수매트는 물을 데우는 방식이어서 쉽게 연소되지 않는다.

최근에는 온열매트와 온수매트 모두 타이머 기능과 일정 온도 이상 올라갈 경우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기능 등을 추가해 안전성을 높여가고 있다. 온열매트나 온수매트 구입을 고민한다면 전력소비량과 화재 안전성, 관리의 용이함 등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좋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인사

◇ 기획재정부 ▷승진 △ 협력총괄과장 이현태 △ 역외소득재산자진신고기획단 김경희 △ 인사과 황경임 △ 예산실 문화예산과 임혜영 △ 예산실 국토교통예산과 이민호 △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최지훈 △ 재정기획국 재정기획총괄과 박현창 △ 공공정책국 제도기획과 김정애 △ 대외경제국 국제경제과 이혜림 △ 재정기획국 재정정보과 이용안

부고

▲ 이위재씨 별세, 김한필(재미)·한상(경희대 교수)·한조(하나금융그룹 부회장)·민수(한국수력원자력 차장)·한옥·한경(재미)씨 모친상, 김은경(서울대학교 교수)씨 시모상 = 27일 오전 9시 30분,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 20호실, 발인 29일 오전 7시 ☎02-3010-2000

▲ 이동선(전 광주시교육위원회 의사국장)씨 별세, 이강훈(가톨릭대학교 성바오로병원 영상의학과장)·수정·수현·수진(서울 삼정중 교사)·도훈(㈜오성링크 팀장)씨 부친상, 권정태(호서대 기계공학부 교수)·하양욱(GS홈쇼핑 부장)·이수범(한겨레 디지털콘텐츠팀장)씨 장인상 = 26일 오후 9시 50분, 광주 조선대병원 2분향소, 발인 29일 오전 9시 ☎ 062-231-8902

▲ 이금순씨 별세, 나영철(자영업)·영석(경향신문 전국사회부 부국장)씨 모친상, 나진이(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씨 조모상 = 27일 오전 5시 30분, 전남 여수 성심병원 장례식장 신관, 발인 29일 오전 9시30분 ☎ 061-650-8333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편집국장	이 장 규
인 쇄 인	송 필 호
광 고 문 의	02)721-9851,3
독 자 센 터	02)721-9861

2002년 5월 31일 창간/등록번호 서울특별시 가00206

행복의 맛에서
행복한 마음으로
이어갑니다

SPC 70년, 행복의 맛으로 세대와 세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빵을 수백만 개 만들어도 고객은 빵 하나로 평가한다"는 신념으로 시작된 작은 제과점 상미당.
상미당의 70년 장인정신이 오늘의 SPC가 되었습니다.
SPC그룹은 세대와 세대를 잇는 맛으로 행복한 세상을 만드는 꿈을 계속 펼쳐나가겠습니다.